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67호

Thursday, April 3, 2025 A

트럼프 취임 후 첫 선거 승리

하원 의석 차 7명으로 벌어져
플로리다 연방하원 두 곳
위스콘신 주민투표도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뤄진 1일(화) 연방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에 변함없는 지지를 과시했다.
이번 승리로 국정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인 위스콘신의 대법관 선거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적극 지원한 보수 성향 후보가 패배했으나, 헌법에 투표시 사진이 부착된 ID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주민투표를 통과시켰다.
플로리다 제1 선거구와 제6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지미 패트로니스 후보와 랜디 파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꺾고 승리했다.
두 후보는 모두 57% 득표율로 넉넉

이 선거결과로 연방 하원의원 정원 435명 중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 213석으로 기존 의석 차이가 5석에서 7석으로 늘어났다.
플로리다 제1선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 지명자였던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사퇴로, 플로리다 제6 선거구는 마이크 왈츠 전 하원의원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서 공석이 됐다.
공화당은 위스콘신에 유권자 ID 필참 조항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이를 따르는 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유권자 ID 조항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투표율을 현저히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유권자 ID 주민투표 찬성률은 62%에 달했다.
특히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커먼 코즈, 위스콘신 공영방송네트워크 등 비영리단체와 민주당이 연합해 부결 캠페인이 벌어졌으나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는 '돈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큰손인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가 200만달러, JB 프리처가 150만달러를 기부하고, 머스크 CEO가 보수 후보에게 3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소요된 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레넨 정의 센터 추계에 의하면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 모인 기부금만 8100만달러에 달했다.

김옥재 기자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 것”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의 일부 수입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추가 관세가 전세계 수입품으로 확대됐다.

관세율은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국도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부과됨으로써 한미자유 무역협정(FTA)가 사실상 무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

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처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외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이 미국에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매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으로 이스라엘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세웠으나 상호관세 부과로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외국과의 추가 협상이 줄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협상 시점을 ‘상호관세 발표 뒤’로 정했다.

음주운전 전력도 ICE 유학생 체포 사유

미네소타대 학생 구금 원인
“DUI는 비자 취소·추방 초래”
법집행 방식 달라진 것 시사

최근 전국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도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생의 체포 원인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 대학원생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다. 이 학생은 당시 미니애폴리스 캠퍼스가 아닌 인근 거주지에서 갑자기 체포됐다.
최근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DHS)의 한 관계자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구금된 학생은) 시위와 관련이 없다”며 “이 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기록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했고, 그 이후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번 미네소타

대학교 학생 구금 건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체포와 달리, 이민 당국의 법 집행 방식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현재 이민법에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비윤리적 범죄)’라는 개념이 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상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CIMT 범죄로, 비자 취소나 추방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CIMT는 비자 취소, 박탈, 추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에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 형사법 또는 이민법 변호사와 즉시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에 차단을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대학이나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F-1), 직업교육(M-1) 비자 등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VEP)’을 승인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장열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책임
순금 야기 불만지말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UNITED MORTGAGE NATION, LLC
NMLS #: 2425871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FBI 공조, 한국서 코카인 1톤 압수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한국에 마약 정보를 넘겨 코카인 1톤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FBI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90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 수색팀은 이날 오전 6시30분 해당 선박이 입항한 직후 배에 직접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당국은 당초 해당 선박이 별다른 화물 없이 빈 채로 옥계항에 입항해, 석회석 등 수출품을 실어 나갈 예정이라고 신고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선박은 노르웨이 국적 무역선으로,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파나마-중국을 경유했다. 합동 수색팀은 비어 있다고 신고됐던 해당 선박을 수색하던 중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세관 마약 탐지견이 탐지 반응을 보였고, 밀실 안을 직접 수색했다. 밀실에선 약 20~30kg짜리 상자 56개를 발견했다.

수색팀은 바로 상자 내용물에 대해 이온스캐너(마약 판독기)·검사 키트로 간이 검사를 했고, 내용물이 코카인의



합동 수색팀이 2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마약이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 무역선에 오르 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 배에서 발견된 코카인 의심 내용물이 담긴 상자들. [사진 관계청]

심 물질인 것을 확인했다. 정확한 중량은 배에서 내려 계측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를 통해 마약 종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내용물이 모두 코카인으로 판정된다면 전체 물량은 약 1t, 4억달러 상당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0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관계청 설명이다.

코카인은 주로 중남미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적발 물량도 중남미 쪽에서 보내진 것으로 의

심되고 있다.

배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20명은 전원 체포했다. 관계청 관계자는 “적발량이 한두 사람이 관여해서는 신지 못할 양”이라며 “국제 마약 조직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조사를 거친 뒤 미국과 공조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미국 FBI·HSI 등 관계기관들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성빈 기자

주미대사관 “이민단속-입국심사 강화 대비하라”

주미대사관이 최근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유학생과 체류국민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도 삼가야 한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한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

이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국적자의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사관은 미국 입국심사관이 ESTA를 소지하였다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북VA 주택 박람회 12일 메리디언 고교에서

버지니아 폴스 처치의 메리디언 고교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버지니아 주택박람회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주택 매매와 관련

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가 마련된다. 작년 행사에는 20만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 박람회 참가비용은 없다.

VA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서 수감자 사망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던 샘 주 용(32세)가 지난 월요일 사망했다. 용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수감돼 있었으며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돼 불법 총기 발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서 2022년 이후 최소 4명이 사망했다. 구치소는 쉐리프국 관할이지만, 사망사건은 경찰국이 담당하고 있다.

연방농무부, 워싱턴 지역 가뭄 재해지역 지정

연방농무부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등 22개 지역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 14개 지역을 가뭄 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 농

가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용자 신청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연방농무부의 카운티 긴급 재해 기금이 할당된다.

4월 강수량-기온 예년 평균 수준 기록할 듯

최근 7개월 연속 예년 수준의 강수량에 미달한 가운데, 기상당국은 4월 강수량이 평년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기상청(NWS) 등은 워싱턴 지역 4월 예상 강수량을

3-3.5인치로 예상했다. 최근 30년래 평균치는 2.21인치였다. 4월 예상 평균기온은 57-60도, 30년래 평균치는 58.3도다. 3월 평균기온은 54.3도로, 30년래 평균치보다 6.7도나 높았다.

비엔나 페트릭 헨리 도서관 2년 후 개장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페트릭 헨리 도서관이 전면적인 레노베이션 공사를 위해 2년간 문을 닫는다. 1971년 개관한 이 도서관은 2년 후

새단장한 후 비엔나-카터 도서관으로 개명된다. 새 도서관은 1만9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최첨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포토맥강 추락 여객기 희생자 유가족 7명 소송

지난 1월29일 포토맥강 상공에서 추락한 여객기의 희생자 유가족 7명이 연방항공국(FAA)와 육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FTCA)에 따라 6개월 동안 협상기간을 가진 후 정식 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원고는 6개월 시한 내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FTCA에 의해 합의할 경우 손해배상 합의액이 5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원고 측은 정부 과실이 명확한 만큼 FTCA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4일(금) 69-56	7일(월) 54-42
5일(토) 67-61	8일(화) 48-31
6일(일) 72-47	9일(수) 56-39

4월 3일(목) 81~6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까운 1층 콘도 킹스팩 \$1,600 방1, 화1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4,100 방4, 화4 1/2, 차고2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3,900 방4, 화4 1/2, 차고2
---------------------------------------------------------	----------------------------------------------------------	----------------------------------------------------------

It's Okay, with Jesus!

“아리랑 무궁화길 축제 오세요”

아리랑 USA 공동체

아리랑 USA 공동체(회장 장두석)가 메릴랜드 주립공원 내 ‘아리랑 무궁화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리랑USA 공동체는 지난 2023년 4월5일 팜타스코 벨리 주립공원에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6월 길이름 공모전을 거쳐 7월8일 ‘아리랑 무궁화길’ 명명식을 열었다.

기념행사는 ‘아리랑 무궁화길 무궁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팜타스코 벨리 주립공원과 함께 5일(토) 오전 10시에 열린다. 무궁화 축제는 풍물패 공연을 필두로 기념식과 무궁화 식수 행사 순



으로 이어진다. 장두석 회장은 “무궁화 축제가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이기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회장은 “아리랑 USA 공동체는 한민족

의 일원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열린 모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리랑 USA 공동체는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한글을 전파해 차세대에게 민족 정체성을 드높이는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메릴랜드에서 한글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도록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밖에도 한인 최초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변수 선생을 기리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 2주년

5월14일 올해 첫 포럼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AKBFF, 회장 강고은)이 월례 모임을 개최하고, 5월 창립 2주년 기념행사 및 2025년 포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5월 14일 예정된 올해 첫 포럼에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초청해 성공담을 듣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관계자 발언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연방상무부 주최로 메릴랜드 게이로드 내셔널 리조트 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SelectUSA 행사에 한국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KABFF) 회원들도 참석하고 14일 포럼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AKBFF는 엄격한 회원 관리 절차를

를 위해 공천위원회의 추천, 서류 검증,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고은 회장은 지난 2년간 관계 구축 및 신뢰 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AKBFF와 KABFF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AKBFF는 2018년 한국에서 설립된 KABFF의 미국 파트너 기관으로, 2023년 5월 버지니아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AKBFF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불체자 수용시설 아시아·아프리카 등으로 넓힌다

연방정부가 추방 불체자를 중남미 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에도 수용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현재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와는 협약에 의해 타국 불법체류자를 수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곳 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수용 의사를 묻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체포-추방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국가가 추방 불체자 수용을 거부하고 연방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당국에서는 추방 불체자 수용을 원하는 국가만 있다면 추방작전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협상 중인 국가는 리비아, 르

완다, 베냉, 에스와티니, 몰도바, 몽골, 코소보 등이다. 연방당국은 공식적인 외교 협약이 없더라도 불체자 수용을 댓가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경우 응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으로 추방한 불법체류자를 외국이 임의대로 해당 모국으로 2차 추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나마와의 협약으로 추방된 100여명이 그러한 경우다. 김윤미 기자

전기요금 인상추진, 정부 승인 후 15% 상승

북버지니아 지역 전기회사 도미니언 에너지가 기본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도미니언 에너지가 감독기관인 버지니아 기업위원회(VSC)에 제출한 신청서에 의하면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매월 기본요금을 2026년 8.5달러, 2027년 2달러 인상하게 된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992년 이후 기본요금 외에 요율 인상 조치 등으로 전기요금은 계속 상승해 왔다. 또한 7월 1일부터 일반가입자의 매월 연료요금이 10.92달러 인상된다. 인상계획이 모두 통과된다면 일반주

택의 매월 평균 요금은 현재 140달러에서 2027년 1월 161달러로 15% 이상 인상된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최근 인건비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전선주, 변압기, 발전 장비 등과 자재비 증가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또한 전력을 과다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등을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대폭 올린 새로운 요금 등급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센터 등은 14년 계약 기간 내 에너지 소모량이 평소보다 줄어들더라도 애초 계약한 전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옥재 기자

또 화장지 품귀현상... 화장지 원료 대부분 수입 의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목재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2020년 팬데믹 초창기 ‘화장지 대란’이 재연되고 있다. 화장지 재료인 나무 펄프 상당량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약 200만톤의 펄프를 대체하는 게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를 27%까지 올리고,

이후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로 화장지 및 페이퍼 타일 생산에 필수적인 침엽수 펄프 공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목재목장 또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펄프 생산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생산량을 줄이면서 팬데믹 초기와 마찬가지로 화장지 공급 부족

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14% 수준인 캐나다산 목재 관세는 올해 안으로 27%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 추가적인 인상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

타국 수입도 여의치 않다. 미국 제지 공장 대부분이 특정 캐나다 제지소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생산 공정을 맞춰 놓아 타국 목재 수입도 힘들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집 철저하게 잘 봐드립니다. 믿고 맡겨보시면 아십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맥클린지역, 비엔나 지역 고급 주택 전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베데스타, 락빌 고급 주택 전문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승경호 추천 매물		
<p>창고 VA 리즈버그 데이터센터주변 창고 3500 SF, 로딩닥 1개, 월 \$6,500</p>	<p>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아파트 투자 월7천불 수입 메릴랜드 아파트 유닛3개, 77만불 메트로 300피트, 좋은 투자상품</p>
<p>식당했던 빈자리 메릴랜드 락빌 좋은 조건의 식당했던 빈자리, 3800 SF</p>	<p>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월 5천6백 수입, 75만불 버지니아 아파트 유닛 4개 군부대, 오래가질만한 투자상품</p>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정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절도범... 차 몰고 한인업소 돌진

LA다운타운 22년된 신발가게 새벽 서터 부수고 4만불 털어

LA 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 한인 업체들의 절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절도범들은 신발 가게, 옷 가게, 한의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경찰과 보험사 등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바 시장에서 22년째 '스포츠 타운(Sports Town)'이라는 신발 가게를 운영해 온 김연식(71) 사장은 1일 황당한 절도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4시쯤 12가와 메이플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있는 업소에 절도범들이 차를 몰고 침입한 것이다.

CCTV 영상에는 절도범들이 흰색 SUV 차량을 몰고 신발 가게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신발 가게 서터는 SUV가 두 차례 들이받자 뚫렸고, 절도범 4명이 순식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신발과 현금 등을 훔쳐 5분 만에 달아났다. 절도범 모두 후드티 모자를 깊이 눌러 써 얼굴을 감췄다. 절도범들이 가게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신발 등 물품을 해집으면서 업소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김 사장은 "4만 달러 상당의 물품과 현금 600달러를 도난당했다"며 "이러한 절도 피해가 이미 이 지역에서 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경보음이 울려 사건 발생 30분 만에 가게에 도착했지만, 절도범들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그는 "지난 해에도 이번과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1만 달러 상당의 도난 피해를 봤는데, 너무나 허망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특히 김 씨는 "보험사에 연락해도 조사가 나을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은



절도범들이 SUV차량으로 LA다운타운 한인 업소 '스포츠 타운'의 서터를 들이받고 벌어진 서터 틈새로 침입하고 있다. [김연식 씨 제공]

걸리고, (보상금 산정을 위해) 피해 현장을 그대로 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주 가게 앞에 차량 진입 방지용 보호 기둥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바 시장의 한인 업주들은 계속되는 절도 사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지역의 피해 업주들은 "매번 비슷한 방식의 절도 범죄가 반복되지만, 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가 발생한 신발 가게 인근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앤디 박(56) 씨도 김 사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유사한 피해를 두 번이나 입었다.

박 씨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이런 유형의 사건이 크게 늘었다. 그는 "같은 지역 업주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한 달에 최소 한두 번꼴로 털려가는 글이 올라온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월리엄 김 원장도 지난해 12월 도난 피해를 입었다.

김 원장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남성 2명이 서터 하단을 봉 같은 도구로 들어

올린 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을 만들어 침입했다"며 "수리비와 장비 교체 비용으로만 약 2500달러가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지역을 노리는 절도범들은 아무래도 동일 인물들 같다"며 "한 번은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가 체포되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와 또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LA경찰국(LAPD) 샤론 김 형사는 "(이 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이 약하다 보니 절도범들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LA 자바 시장에서 한인 업소를 비롯한 16개 업체가 연쇄 절도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절도범들은 자바 시장 업소들이 주로 문을 닫는 주말을 노려, 감시 카메라 등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벽을 뚫고 침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한길 기자

LA 검찰 수사 조직 한인이 이끈다

토니 이 수사국장 임명 아시아계로도 첫 발탁



한인이 LA 카운티 검찰청 수사국 조직을 이끌게 된다. 네이션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1일 토니 이(Tony Lee-사진) 벤틀라시 임시 경찰국장을 수사국장(Bureau of Investigation)에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국장의 발탁은 한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로도 처음이다.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은 수사관만 230명이 넘는 조직으로 카운티 내 수사 기관 가운데 네번째로 규모가 크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 국장은 30년이 넘는 법집행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 깊이 있는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의 실현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며 "수사국의 전문성, 공정성, 정의 실현에 새로운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베버리힐스 경찰국에

서 26년간 근무하며 행정, 현장 대응, 수사 부서를 모두 지휘했으며, 2017년부터 6년간 UCLA 캠퍼스 경찰국장을 역임했다. 캅스테이트 LA를 졸업(범죄학)한 이 국장은 캅스테이트 노스리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FBI 아카데미,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고위 경찰 관리자 과정(SMIP) 등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도 이수했다.

이 국장은 "한인으로서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직에 올라서 영광스럽다"며 "더 많은 아시아계가 법집행 기관에 진출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벤틀라시 임시 경찰국장을 맡고 있는 그는 6월 초에 수사국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최인성 기자



칼스배드 꽃밭 축제 한창 남加州 최대 규모의 꽃단지로 유명한 칼스배드 더 플라워 필드(6704 Paseo Del Norte, Carlsbad)에서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플라워 필드 방문객은 55에이커 부지를 거닐며 주황, 노랑, 빨강, 하양 등 다채로운 레넌클러스(Giant Tecolote Ranunculus) 꽃들을 구경할 수 있다. 이번 봄꽃 축제는 5월 11일 마더스 데이까지 이어진다. 플라워 필드 측은 앞으로 2-3주째 만개한 꽃들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방문객은 웹사이트(theflowerfields.seetickets.com)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플라워 필드 꽃밭에 형형색색의 레넌클러스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더 플라워 필드 웹사이트 캡처]

한미은행장 작년 보수 226만불 받았다

한미은행장 작년 보수 226만불

한미은행의 바니 이(사진) 행장이 작년에 보수(컴펜세이션)로 226만 달러를 받았다.

은행의 지주사 한미파이낸셜콤플이 지난달 31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이 행장의 2024년 보수는 기본급 78만 달러와 80만 달러 상당의 주식 그랜트를 포함한 총 226만 달러였다. 이는 전년의 207만 달러와 비교하면 9.3% 늘어난 것이다. 론 샌타로사 최고재무책임자(CFO)



2024년 보수는 약 72만 달러로 전년(67만 달러)보다 약 7.2% 늘어났다.

한편, 한미은행은 내달 28일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오전 10시 30분(서부 시간)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주주들은 존 안(이사장), 크리스틴 볼, 크리스티 추, 해리 정, 글로리아 아이, 제임스 마라스코, 데이비드 로젠블럼, 토마스 윌리엄스, 마이클 양, 유기돈 이사와 당연직인 바니 이 행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 선임, 주요 경영진 컴펜세이션, 외부 회계법인 선정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은행 측은 지난달 기업 및 커머셜, 프라이빗 बैं킹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틴 볼 이사를 선임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이로써 이사진 수는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조원희 기자

1분기 증시 2년 반만의 최악 부진

트럼프발 무역 전쟁 심화 우려 등으로 1분기 증시가 2년 반만의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1분기 기준으로 S&P500 지수는 4.6%, 나스닥지수는 10.4% 각각 하락했는데 이러한 하락률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두 지수를 끌어내렸다.

최근 들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급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설문 조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주식시장 글로벌 책임자인 제시 마크는 "주요 이슈 관련 소음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속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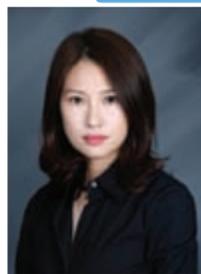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굤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300만불 투자사기 한인 여성 기소

한인 시니어들 타겟 '10% 수익, 원금보장'

고수익률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다단계 금융 사기 행각을 벌였던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됐다. 연방검찰 워싱턴주 서부지검은 '폰지 스킴' 혐의를 받고 있는 페더럴웨이 거주 이윤정(52·영어명 제니)씨에 대해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씨는 원금 보장 및 10%의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후 이 돈을 카

지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유명 회사들을 설립한 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고 다녔다. 이런 수법으로 최소한인 시니어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챘으며, 그중 약 100만 달러가 지역 카지노에서 인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씨에게는 송금 사기, 은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이렇게 모은 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법 금융 서비스 업체에 '자기 주

도형 IRA(Self-directed IRA)'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유도했다. 자기 주도형 IRA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한 계좌다. 이후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유명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업체에 약속 어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는 기소된 혐의에 각각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 기자**

아이비리그 7곳 동시 합격

우드랜드고교 조슈아 이 군 생물의학 전공 하버드 진학



이 씨의 막내딸은 태권도 미국 국가 대표 선수다.

이 씨는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잘 발휘하고, 입학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알리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물의학 전공자를 꿈꾸는 이 군이지만, 그는 학창 시절 음악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맨해튼 음악대학 프리칼리지 과정을 들었고, 이곳에서 재능있는 작곡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비영리단체 'Composers Unveiled'를 창립했다. 실력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발굴해내고 연주까지 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이 군이 만든 단체는 프리칼리지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됐다.

이 군의 어머니는 "단순히 GPA나 경시대회 등만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해내고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관세 폭풍 속 한국차 호조

투자릿수 신장... 신기록 행진 SUV·세단 선전, 전기차 부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 전기차(EV) 구매 지원금 대상 제외 등 한국차 브랜드가 어려운 환경을 맞은 가운데 각 업체 모두 지난 3월과 1분기 판매 신기록을 경신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1일 발표된 판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차 3사는 3월 한 달간 총 17만2666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1분기 전체를 봤을 때 합계 판매량이 41만99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인 지난 3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 많은 8만7019대를 판매해 3월 신기록을 세웠다. 1월

부터 3월까지 1분기 판매 총합은 20만3554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10% 더 많았다.

특히 SUV 투싼은 3월에만 2만3631대가 팔리며 전년 대비 28% 증가, 가장 많이 팔린 차종으로 기록됐다. 다만 전기차인 아이오닉6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지난 3월 28%, 1분기 9%씩 떨어져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기아 미국판매법인 또한 전년 대비 판매량이 3월 13% 증가한 7만8540대, 1분기 11% 증가한 19만8850대로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K5는 지난 달 6399대가 팔려 2024년 3월 대비 판매가 44% 급등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SUV인 스포티지다. 지난 3월 1만6872대가 판매됐다. EV9과 EV6는 3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 9%씩 줄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3월 총 판매량이 7107대로 전년 대비 20%, 1분기에는 1만7505대로 18% 늘었다. 모델별로는 GV70 모델이 강세를 보였다. GV70은 3월에 2553대가 팔리며 52% 증가했다. 1분기 총 판매량은 64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많았다.

한편,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현대차는 국내 딜러들에게 차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랜디 파커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현지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 2일 이후 도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 측은 공식 성명에서 "현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

소셜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조직 축소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국(SSA)의 핵심 기술 인력까지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 사회 보장 혜택 지급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SSA

내부 관계자는 "팀원 중 약 4분의 1이 은퇴 또는 사직을 결정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핵심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민간의 고액 연봉 제안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연금 지급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은 기한 내 완료가 어렵고, 기존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던 전문가들도 줄줄이 떠나는 상황이다.

내부 관계자들은 "오류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수동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다 떠나고 있다"면서 "단약 오류가 발생하면 몇 달간 소셜연금이나 생활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산서에 대 대신 '멕시코로 돌아가'

LA 국제공항의 음식점 '할리우드 플래닛'에서 한 손님이 계산서에 '블레자에게는 팁을 줄 수 없다'는 글과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 식당에서 해당 계산서를 받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직원 길레모 오티즈는 "내 아내가 멕시코 출신인데 2014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해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열심히 사는 이민자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해당 고객은 실제로 팁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레모 오티즈 제공]**

행정부 또한 체크 지급 방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6820만 수혜자 중 약 0.7%인 45만6000여 명이

여전히 체크를 수령하고 있다. SSA는 이들에게 계좌 이체 또는 직불카드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Nationwide is on your side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해외 구조대 1143명 합류... 108시간 만에 호텔 직원 구해

(수도 네피도)

일본·중국 등서 온정의 손길 이어져
구조품 1900t 도착... 복구에 큰 도움

“일본에서 왔다. 네피도로 먼저 가서
구조 활동을 할 거다.”

2일 오후 12시(현지시간)께 낱색 단
체복에 일본 국기 패치를 단 일본 구조
대원 30여 명이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끌고 가는
카트에는 개인 짐과 구조물자 네다섯
개씩을 싣고 있었다. 이들은 미얀마 지
진 참사 현장에서 긴급 환자와 생존자
들을 돌볼 예정이다. 그보다 20여 분
앞서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온 중
국 구조대 2진 역시 입국했다. 이들은
기자에게 긴장된 표정으로 “(지진 피
해가 심한) 만달레이에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7.7 규모의 대지
진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여진 공포, 병원 주차장서 환자 치료 지진 발생 72시간째인 2일, 네피도에서 생존자 구조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날 만달레이 병원 주차장엔 야외 병상이 마련됐다. 일부 병동이 붕괴된데다, 여진에 따른 추가 붕괴가 우려돼 병원 측은 환자들을 야외에서 돌보고 있다. 만달레이=이도성 기자

국제사회가 구조대를 급파하고 구조품
을 보내는 등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
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36편의 구조기
를 통해 1143명의 구조대, 12개국에서
1900t이 넘는 구조물자가 미얀마에 도
착했다”며 “수색과 구조에 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들 해외 구조대는 수도와 전기가
끊긴 열악한 현장에서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2일엔 수도 네피도의 한 호
텔 붕괴 현장에서 미얀마·튀르키예 합
동 구조대가 26세의 호텔 직원 한 명을
지진이 발생하지 108시간 만에 구해냈
다고 한다. 재난 구조의 ‘골든 타임’(72
시간)을 넘겨서였다. 하지만 90여 명이
매몰된 스카이라인 빌라에선 아직도 생존
자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지진으로 곳곳에 벽에 금이 간 만달
레이의 한 병원에선 의료진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의지해 부상자들을 돌
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부상자들로 발
디딜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병
상이 모자라고 여진에 따른 붕괴도 우
려되는 탓인지 병원 밖에도 병상이 빼
곡했다. 미얀마의 복잡한 정세는 구
조 활동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

다. 군부에 맞서는 미얀마 국민통합정
부(NUG)와 반군 연합체 ‘형제동맹’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공격을 중
단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하지만
군정은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반군
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미얀마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호
소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
(IRC)는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상황
이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과 인도적 지원을 촉
구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아동기금
(UNICEF·유니세프)도 “어린이들이
생존 위기와 함께 트라우마를 겪고 있
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희생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날
군정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자 규모
를 사망자 2886명, 부상자 4639명, 실종
자 373명이라고 밝혔다.

만달레이 양곤=위문희·이도성 기자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 공습... "19명 사망"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난민촌을 공
습해 19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
제하는 가자지구의 난민촌인 이남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 있는
유엔 건물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며
19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 대원들이 숨은 자발리아
지역의 지휘통제센터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 단지는 하마스의
자발리아 대대가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을 겨냥해 테러 공격을 계획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가자지구 공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의 모스크 [연합뉴스]

습을 재개한 뒤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하마스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의 고
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에 억

류된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
단 알렉산더 등 생존 인질 10여명이
석방되는 조건으로 40일간 휴전을 재
개하는 방안을 중재국을 통해 하마
스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 33만7천대

전년대비 13% 감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인
도량이 올해 1분기(1~3월) 들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
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차량 33만6
천681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38만7천대) 대비 13%
감소한 규모인 데다 시장조사업체 팩
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0만4
천대)에도 못 미쳤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글로벌 전
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된 데다 일
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의 정치적 행보로 세계 각지에서 테
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풀이된다.

모델Y 생산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
1분기 중 부분적 가동 중단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에서 “모델Y를
생산하는 4개 공장 모두에서 생산라인
전환이 이뤄지면서 몇 주간 생산이
중단됐지만 새 모델Y의 생산 증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
명했다.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뉴욕증시 개장
초 테슬라 주가는 장중 전장 대비 4%
대 하락 거래됐다.

독일 대마초 합법화 1년... 코카인·LSD 늘어

독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한
뒤 코카인과 LSD(리세그르산 디에틸
아미드) 등 다른 마약류 사건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의 2024
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코카인 관련 범죄는 3만8천71건으로
2023년에 비해 4.8%, 환각제 LSD는 1
천73건으로 32.6% 늘었다.

신중량정신성물질(NPS)로 불리는
각종 합성 마약류 사건도 같은 기간 3
천5천건에서 4천255건으로 41.6% 급증
했다. 마약류 가운데 헤로인만 1만130
건에서 8천634건으로 14.8% 감소했다.

전체 마약류 사건은 34만6천877건에
서 22만8천104건으로 34.2% 줄었다.
이는 기호용 대마초가 단속·처벌 대상
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양
지로 끌어올려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
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4
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독일
전체 인구의 5% 안팎인 400만~500만
명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대마초를 구하기가
어려워 애초 의도와 반대로 대마초 암
시장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뀐 마약법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
초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대마초를
피우려면 직접 재배하거나 공동 재배
모임인 대마초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으로 꼽히는 바이에른주의 경우 대마
초클럽이 아직 1곳도 없다고 BR방송은
전했다.

베를린경찰청의 플로리안 나트 대변
인은 압수한 대마초가 2023년 1.6t에서
지난해 6t으로 늘었다며 대마초 불법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기독교민주당(CDU)·기
독사회당(CSU)을 중심으로 차기 정
부가 꾸러지면 기호용 대마초가 다
시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DU-CSU 연합은 지난 2월 총선 과정
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대마초 합법화 행진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o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서 3호, 심박스프링 롯데 아울렛(+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롯데/안아름(+mar)과 맨덜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t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tlawpllc.com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헤반 1주년 기념 이벤트

정통 한식 구이 전문 헤반이 1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고객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

- 친구 한명을 데려올때마다 스탬프 1개 적립 (본인 포함)
- 10개 스탬프를 모으면 무료 맥주 또는 애플타이저 제공
- 스탬프 카드를 완성하면 경품 추첨 이벤트 자동 응모 (4월 11일 마감, 4월 30일 추첨)

*스탬프 카드는 직원에게 요청하세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경품 내용

1등
\$3,000
1명

2등
\$1,000
1명

3등
\$500 2명
기프트카드

4등
\$200 5명
기프트카드

5등
\$100 10명
기프트카드



☎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월~목, 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금~토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주말 발렛파크 서비스 해드립니다.

철통보안 속 재판관 8인, 윤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작업

(현재)

현재, 평결서 사실상 결론 났지만
내일 오전까지도 문구 손질 계속
현재 “평결 데드라인은 선고시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극비리에 결정문
을 작성 중이다.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
은 선고일인 4일 오전까지도 계속된다.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
고, 소수의견(반대·보충·별개의견)이
있으면 다수의견(법정의견) 뒤에 붙인
다.

2일 현재 내부는 선고일을 확정하면
서 “큰 산을 넘었다”고 안도하는 분위
기이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은 철통보
안 속에서 결정문 확정 절차에 돌입해
더 바쁘게 움직였다. 우선 주심인 정형
식 재판관이 평결을 통해 도출된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
고 있다. 전날 이뤄진 ‘평결’은 인용·기
각·각하 등 의견에 재판관들이 각자 표



경찰, 캡사이신 분사기도 등장 경찰이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캡사이신 분사기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결하는 절차다. 이제는 평결로 결정된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에 문구를 넣고
빼고 고치며 결정문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만 남았다.

평결에서 결정문의 방향은 정해진
셈이지만, 이어지는 결정문 작성 과정
역시 중요하다. 결정문에 들어갈 구

적인 문구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줄
다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단계에서 수
정·삭제를 요구하고, 타협하며, 새로운
의견이 등장하는 등 판결문 작성 과정
도 실질적인 평의의 역할을 한다. 한국
현재가 모델로 삼은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는 아예 평의를 ‘사건평의’와 결정
문 초안을 놓고 논의하는 ‘결정문 작성
평의’의 두 단계로 나눈다.

‘평결’이 단 한 번만 이뤄져야 하는
최종적 절차가 아닌 만큼, 결정문 문구
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변경하
거나 보충의견·별개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천재현 현재 공보관은 “평결의 데
드라인은 선고 시점”이라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회법 변호사는
“개별 재판관들은 의견을 정하고 결론
에 이르게 된 논거까지도 결정했을 것”
이라며 “남은 시간은 각자 논지를 다듬
고 추가·보충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고 했다.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역시 “긴 시간 논의해 온 의견을 바꿀
단계는 이미 지났을 것”이라며 “문장이
나 단어 수준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 같
다”고 했다.

결정문 작성 절차는 길게는 선고 당
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발간된 구술서
에서 “결정문은 선고일 전날 저녁 자정
이 지나도록 비서관 정태호 박사(현 경
희대 교수)와 함께 의견을 완성했다”고
돌이쳤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
핵 때는 선고 당일 새벽 3시까지 연구
관들이 오달자나 어색한 표현이 없는
지 검토를 거듭하고, 당일 아침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시 친필로
다듬었다고 한다. 최서민 기자

대한민국 초비상... 경북공 문닫고 기업은 재택도

경찰 ‘진공구역’ 현재 반경 150m로
각국 대사관도 자국민에 ‘주의령’
한덕수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
일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4일 윤석
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어떠
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를 차분
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불법·폭력행위, 공동
체 파괴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
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찰은 선고일에 만약의 돌발 사태
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인근 반경
150m에 ‘진공상태’ 구역을 구축했다.
진공 구역에선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
되고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경찰
은 경찰버스 160여 대, 차벽 트럭 20여
대 등 총 200여 대 차량을 동원했다. 헌
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위해 천막농성을
하던 여야 국회의원들도 150m 선 밖으
로 이동했다.

다만 해당 구역 안에 거주지와 직장
이 있는 일반 시민의 경우 통행이 허용
된다. 경찰은 “집회 목적으로 인도를

막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을 관리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통행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제 범위를 150m로 확대한 이유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상황을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 당
시 차벽 트럭 바깥쪽에 경찰버스를 세
워뒀다가 한 대가 시위대에 탈취당하
면서 차벽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인 적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바깥쪽에
벽을 높게 세운 차벽 트럭을 먼저 세우
고 경찰버스는 모두 안쪽에 배치했다.

선고일에 현재 경내에 경찰특공대
20~30명이 배치된다. 현재 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된다. 선고일 당일에는 헌재뿐 아
니라 국회, 대사관 등 외교시설,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언론사 등 주요 시설
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또 취재인력
보호를 위한 전담팀도 운용한다. 또 헌
재와 광화문 일대 주요 궁궐과 문화시
설도 문을 닫는다. 경북공·창덕궁·덕수
궁 관람이 중지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역사박물관·국립민속博物
관·국립고궁박물관·청와대는 휴관한
다.

현재 인근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
우려에 4일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옥 방
호 등 비상사 대응을 위한 최소 인력만
출근한다. 같은 건물에 쓰는 HD현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
옥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안국역 인근
에 사무실을 둔 SK에코플랜트와 SK
에코엔지니어링은 4일을 전사 공동 연
차일로 지정했다.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대사관은 한국내 자국민에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한미
국대사관은 2일 안내문에서 3일 오후
부터 4일까지 대사관의 영사 업무가 취
소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
민들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나 집
회 장소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혜연·이현·최혜리 기자

윤 선고 이후 대한민국은... “곤 될지, 대붕 될지 갈림길 섰다”

(鯨:작은물고기)

(大鵬:큰새)

철학자 최진석이 진단한 2025 한국
“정치권, 어떤 판결 나도 승복하고
국민들은 책임감 있는 모습 중요
특정 집단 정의에 갇혀 생긴 갈등
잃어버린 자기 자신 찾아 풀어야”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찌지 않은
곳이 없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 혼
돈이 그칠 것이다.”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이 남
긴 말이다. 철학자 최진석은 지난 1일
중앙일보와 만나 2025년의 한국이 다
산의 시대와 판박이라고 진단했다. 그
는 “당과 싸움에 빠져 산업혁명 흐름
을 놓친 조선과 지금 한국이 똑같다”며
“지금 우리는 조선처럼 망국으로 갈지,
풍요의 시대로 돌아갈지의 갈림길에
있다”고 일갈했다. 그 “지금”은 4일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
후다.

-4일 선고가 역사에 어떤 이정표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이정표가 되기는
했는가. 잘 모르겠다. 이번 선고가 스
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
이다.”

-이후 정국도 안갯속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복이다.
어떤 판결이 나도 모두 승복해야 한다.”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
有責)”이란 말이 있다. 나라의 흥망은
필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도 국민이 만든 것이고, 스
스로 책임지는 의식이 중요하다.”

-지금의 한국을 진단해 달라.
“어느 나라가 있다. 경제성장률은 계
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 20년 동안 5명
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이 탄핵심판을 받
고, 탄핵심판을 받지 않은 1명은 감옥
에 갔고, 한 명은 목숨을 끊었다. 어떤

수준의 나라인가.”

-국가의 문제는.
“한국은 추격국가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미 도달해 버렸다.
작은 물고기인 ‘곤(鯨)’이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가는 대붕(大鵬)이 되려면
운갓 풍파를 이겨내고 더 높고 먼 곳으
로 건너가야 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다시 ‘곤’으로 추락한다.”

-노벨문학상도 타고 BTS도 배출했는데.
“이대로 가면 10년 후엔 과거의 영광
일뿐이다. 관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세계를 보지 못하면 기술과 산업이 뒤
쳐지고, 국력이 쇠락한다. 전수진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욱스 하이, 프로스티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Clifton 싱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새입차임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11.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오, 스크린덱
2. 쉐넬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7. 맥클린 하이, 럭셔리 싱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입차임, 맥클린하이, 롱플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2. 맥클린 콘도 \$485,000 방고 환한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 2, 테라스 빌 2, 1335sqft
3. 쉐넬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8. 맥클린 하이 싱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입차임, 맥클린하이, 롱플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3. 게인스빌 콘도 \$425,000 Open House 4/13 SUN 2-4pm @7168 Little Thames Drive, Gainesville, VA 20155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29, R1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던홈,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슬라 팩넵, 6,228sqft	9.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 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워키킴아웃, 맥, 펜스	14. 맥클린 하이 싱글 렌트 \$5,900 방 5, 화 3, 카포치 2, 펜스, 전부 모던리모델링, 6/1입주, 메트로 인근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메인/플렉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쉐넬리 하이 타운 \$599,999 방 3, 화 3.5, 1,980sqft, 맥, 워키킴아웃 지하 (방, 플렉스), 50/286	15.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정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정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점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새봄맛이 후루룩 스페셜

APR. 3rd - APR. 10th, 2025



아씨 쌀국수 박스 (김치맛 8 개입 / 월남국수 6 개입 / 멸치 8 개입)



Rice Noodle Soup Bowl (Kimchi 8ea / Pho 6ea / Anchovy 8ea)

~~\$13.99~~ **\$8.99**

8X3.17 OZ
6X3.5 OZ
8X3.1 OZ

만점 중 오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24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35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855 Melrose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00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80 Dole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1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권영세 “야당 승복 입장내라” 이재명 “승복은 윤이 하는 것”

윤 탄핵심판 앞두고 서로 비판

야당, 승복 입장 없이 “윤도 안 밝혀” 제2의 이완용 언급하며 현재 압박 여당은 뒤숭숭, 의총 침묵만 이어져 “다들 생각 있겠지만, 기도하는 마음”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로를 겨냥해 ‘승복’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현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의원들께서도 각자 자리에서 소신을 지키며 우리 당 뜻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4월 4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야당 지도부를 향해선 “폭동 테러 사주”(권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복귀” vs “파면”... 여야 탄핵 여론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현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대표는 지금 당장 현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는데, 관련 입장에

변동이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단 한 번도 승복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각각도 승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히려 민주당에선 현재를 압박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기각 혹은 각하의 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역사적 죄인이라 제2의 이완용”이라며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도 2일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에 대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이라며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큰 불명예”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선 선고 기일인 4월 4일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의총에선 별도 자유발언 신청자도 없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어나 “다들 생각들은 있으시겠지만,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시다”라고 말하고 의총을 마무리했다. 한 참석자는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조용한 의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반탄(탄핵 반대) 의원들은 선고 일인 4일 헌법재판소 앞에 결집하기로 했다. 반탄 시위를 주도해 왔던 윤상현 의원은 시민 약 178만 명의 서명을 받은 탄핵 반대 탄원서를 2일 헌재에 제출했다.

김나한·성지원 기자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간 군인들...내일 헌재 판단은?

탄핵소추 사유 ‘국회 무력화’에 포함 윤측 “의사활동 방해 아니다” 주장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은 비상계엄 당시의 가장 선명한 장면이다.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 국민에게 전달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 이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군병력 투입은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대목에 포함된다. 국회 봉쇄와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목격자와 증인이 많기도 하지만, 윤 대

‘국회 장악 시도’ 연루자 수백 명 ※ 표시는 ‘윤석열 직접 통화’ 의혹 인물

<p>국회 진입 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방위사령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대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p>국회 외곽 배치 경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p>의원·정치인 체포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p>특수전사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대통령 →곽중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령 측에서 건건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해 왔다.

국회에 투입된 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다. 그중 국회 외곽에서 차단을 시도한 건 수방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인 모두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3번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진입해 본청 내부로 직접 들어간 건 특전사다. 곽중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중 두 차례 연결됐는데 ‘아직 의결정속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계엄해제의결 저지를 유추할 법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위치의 김현태 전 707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병력이 국

회의원들을 끌어내 의사활동을 방해 하기에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 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지시’와 관련한 진술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인원”이란 표현은 써본 적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김병주TV’에 출연한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의원·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홍장원이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의 메모 작성 시간·위치 등이 사실과 다 달라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신빙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연·심석용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aetna | Anthem HealthKeepers Plus | MOLINA HEALTHCARE | Sentara Health | United Healthcare Community Plan

Cheltenham Homecare | **첼튼햄 홈케어** |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 환자 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 문의 전화: 800-764-1005 |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 *건강한 치아* |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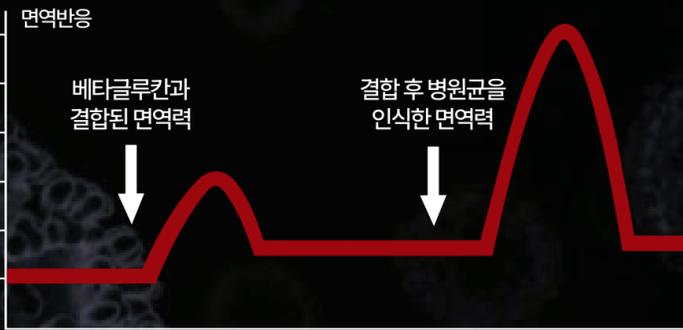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강력한 면역 활성화 물질- 베타글루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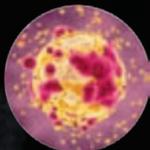
단기간에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분에게 좋습니다!



암투병



항암 치료 후 재발 관리



만성염증



조강일
내과전문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키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우메켄 **NEW** 베타글루칸

- 영지버섯
- 상황버섯
- 차가버섯
- 꽃송이버섯
- 녹각영지버섯
- 동충하초
- 송이버섯
- 마이다케(잎새)버섯
- 아가리쿠스버섯

9가지 항암버섯에서 추출한 우메켄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함량을 **280mg**으로 올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강력한 면역력을 위해! 우메켄 베타글루칸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암 치료 중인 분
-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
- 고열이 자주 발생하여 몸이 떨리고 질병 회복 기간이 긴 분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 백혈구 수치가 낮아 구내염, 설사, 감기, 독감에 자주 걸리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개헌 38년, 시대적 역할 다한 87체제

이젠 개헌이다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발표를 전한 중앙일보 지면.

중앙일보 헌정개혁포럼 제인

윤 탄핵선고 직후 여야동수 특위 구성

조기대선 댄 후보들 개헌 서약하고

윤, 복귀 댄 약속대로 개헌 추진을

승자 독식과 권력의 폭주, 비토 권력을 쥔 야당의 결사적 맞대응, 양 진영이 대표 선수를 링 위에 올려 싸우는 검투사 정치.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선포된 계엄과 이후의 극심한 혼란, 들로 찢긴 광장은 대한민국이 잉태한 거대한 모순의 고백이었다. 우리가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채 해 온 부조리와 불합리가 일제계절을 넘어 폭발했다. 꼬이고 얽힌 모순의 실타래를 끊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이가 개헌을 꼽고 있다. 시대적 역할을 다한 1987년 헌법을 대체할 새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9일 각계 전문가들로 ‘헌정개혁포럼’을 발족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등 5명의 위원이 열 차례 회의를 통해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 직후 여야 동수의 개헌특위를 구성,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후보들이 개헌 찬성 여부,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국민투표 일정, 새 헌법 시행 시기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국민 앞에 서약해야 한다는 뜻도 모았다. 탄핵소추가 각각 각하될 경우

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최후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약속한 만큼 국회 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포럼이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의 키워드는 ‘분산’이다. ▶현행처럼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4년 중임제로 하되 ▶행정의 권한은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맡는다. “중구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권력구조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협치와 연정의 기반 구축을 위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치 일정상 불가능하면 늦어도 2026년 지방선거 때는 실시돼야 한다.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대선 때 1차 개헌을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2026년에 하는 방안도 있다”는 입장이다. 탄핵 기간·각하 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헌법이 사회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헌의 절차를 지금보다 쉽게 고치고, 권위적인 ‘대통령’ 호칭을 바꾸는 방안도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서승욱 정치외교안보 부국장

“보수도 진보도 양극단서 검투사식 정치만..”

중앙일보 헌정개혁포럼... 학계·정계 제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펼쳐진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대한 변곡점이다. 모든 국민이 공유한 이 초유의 사건을 국가적 분열과 혼란의 기억으로만 남기느냐, 아니면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반전시키느냐는 우리 국민과 정치인의 몫이다. 중앙일보 헌정개혁포럼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발족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집권하더라도 국가만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양 진영이 모든 레벨에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검투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 속에 열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토론 요약.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과 총리 권력 분산이 핵심
‘군주’ 연상되는 대통령 호칭 교체



우윤근 전 주러 대사

국회, 대권 도전 베이스캠프 댄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제도 바꿔야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폭풍 같았던 계엄과 탄핵 정국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개헌 요구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느닷없는 계엄령이 오히려 개헌의 적기임을 부각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한국의 대통령제가 몰아 닦은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도 국민들이 동의할 거다. 정치는 자원 배분이고, 불공정의 핵심은 돈과 권력인데, 선거에 이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문제의식이 이번 사태를 거치며 표출되고 있다.

▶우윤근 전 주러 대사=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주요 국가들 중 1위다. 2013년까지는 튀르키예에 이어 2위였는데 더 올라갔다. 튀르키예는 종교·인종 갈등 때문이고, 순수한 정치 갈등은 우리가 최고다. 우리 일상적으로 편을 갈라 검투사 게임을 한다. 로마가 검투사 게임을 하다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계 석학인 후안 린츠 미 예일대 교수가 1990년 ‘대통령제의 위험성’이란 논문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다 정통성이 있는 이원적 정통성이 특징이라 극단적 대립구도가 되면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려는 위험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원래 남미를 보고 쓴 논문인데 한국에 들어맞았으니 학자로서 장피하다. 린츠의 결론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우리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 조항이다. 민주정은 강화돼 왔지만 공화정은 현저히 약화됐다. 누구도 헌법 1조를 지키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중반까지는 뭔가 합의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소야대 시절의 4당 합의 정치, 내각제 개헌 시도와 DJP연합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통일부 장관에 박근혜 의원 기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급전직했다. 과거 ‘국민’이나 ‘시민’들이 이제 진영의 ‘진민’이나 정치적 부족민이 돼버렸다.

▶이하경=헌법은 어느 날 뚝 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 철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협치와 연정을 가능케 한 현재의 독일 헌법도 왜 히틀러를 탄생시켰는지의 반성이 토대였다. 정치 제도의 힘은 무섭다. 일본의 왕이 권력을 내려놓는 건 대통령이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인데, 일본은 내각제를 도입하면서 그것을 해냈다. 칼싸움에 능했던 무사의 나라 일본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내각제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우윤근=이번엔 그냥 절충해 버려선 안 된다. 철저하게 반성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그걸 잘 참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87년 체제도 철저한 반성이 아니라 한시적인 미봉책이었다. 시간이 없으니 직선제만 하자, 이런 식이었다.

▶박명림=헌 체제가 지속돼선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비전과 가치, 공통의 준거가 뭔지 합의가 안 되니 국정 의 연속성도 없고, 그냥 ‘진보 공화국’ ‘보수 공화국’ 등 점점 멀어지는 2개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언어적·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이미 무력적·신체적 내전으로 들어갔다. 과거 광화문에 많이 몰리느냐, 서초동에 많이 몰리느냐 이리다가 서부지법 사건에선 몸이 총탄이 되고 무기가 되는 지경에까지 왔다.

▶우윤근=국회가 엉망이 된 원인도 현행 대통령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회가 대권 고지를 향한 베이스 캠프가 돼버렸다. 여당은 대통령 앞잡이 노릇을 하기에 바쁘고, 야당은 투쟁하기에 바쁘다는 차이만 있다. 19, 20, 21대 총선 국회의원 평균 교체율이 50%다. ‘물갈이’는 세계 1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은 놔두고 사람만 들어냈고, 중증 암환자에게 진통제 처방만 낸 꼴이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종섭=민주주의가 되려면 사고방식이 권력 지향이나 아니라 가능 중심이

여야 하는데, 우린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니 모든 선거는 이기는 방법이 뻔하다.

편을 가르고 (자기 진영의) 대표 무당을 찾아내고 국판을 벌인다. 국판을 벌일 수 있는 선수를 내야 이긴다. 무당 기질이 없는 후보는 필패다. 일종의 사며니즘이 정치 저변에 깔려 있다. 권력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많은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한다.

▶강원택=대통령 혼자 이끌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이가 역할을 분담해 함께 끌고 나가는 형태가 오늘날의 한국에 보다 적합하다.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하경=1982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당 간부들에게 “어떤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종섭=권력 분산이 핵심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은 직접 뽑고 싶어 하니 직선제를 그만 하자고 할 수는 없다. 단 임제의 문제도 있으니 4년 중임 대통령 방식으로 하되 대신 행정의 책임을 총리에게 지워야 한다. 장관도 사실상 총리가 지명하는 것이다.

▶우윤근=‘갈등 공화국’ 구조를 바꾸려면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내각 구성원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사하되 ‘직선제 대통령’에게는 통일과 외교안보 부총리 등에 대한 추천권을 준다. 총리에 대한 의회의 건설적 불신임제와 대통령·총리의 국회해산권을 함께 인정하되, 총리 취임이나 총선 이후 1년 또는 2년 내내 불신임이나 해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박명림=인물 한두 명이 국가의 근본 원칙이나 방향을 좌우해선 안 된다. 인물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야 의견과 이익의 조정 과정을 거쳐 실용주의가 등장한다.

서승욱 정치외교안보 부국장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촌 길건너편)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하이트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중앙일보건물2층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드래쥬르 제과점 옆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고품격 고국일주 1차 **4자리 4500**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1차 4자리 4500**
 4/30-5/6 6박7일 \$27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차 4자리 4500**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1차 4자리 4500
 5/5-5/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5/13-5/23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4자리 4500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6자리 4500**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6/28-7/5 7박8일 \$2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6/30-7/3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8/02-8/15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8/21-8/31 10박11일 \$2990+항공/오션뷰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8일 \$2190(항공/인사이드) \$2590(항공/가려진 발코니)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17-10/26 9박10일 \$2990+항공 부타-인사이드 \$3490+항공 부타-오션뷰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29 8박9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일본 크루즈 11/3-11/14 11박12일 \$2490+항공 부타-인사이드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침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1차 04/15~04/25 10박11일 \$2990+항공	3차 09/16~09/26 10박11일 \$2990+항공 + 오사카 3박 4일 9/27~9/30 실속 \$12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4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 동경 3박 4일 10/25~10/28 실속 \$12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 일본크루즈 11박12일 11/3~11/14 인사이드 \$2490+항공 부타-오션뷰 발코니 \$3160+항공 부타-	6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 동경&오사카 5박6일 11/8~11/13 실속 \$19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	------------------------------------------------------------------------------------------------------------	-------------------------------------------------------------------------------------------------------------	-----------------------------------------------------------------------------------------------------------------------------	---------------------------------------------------------------------------------------------------------------

3세대 투어 영어&한국어 가이드

3세대 투어: 1세대, 2세대 자녀, 3세대 손자/손녀와 모국 관광-일본 여행을 계획 하시면 탑여행사에서 보장하여 맞춰드립니다.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조선부산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여행지 서울/전주, 담양/순천, 여수/광양, 하동/진주, 거제/부산, 울산/경주, 정동진/강릉, 속초/제주(읍선)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2인 이상 출발보장]

6박 7일 내륙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2박 3일 제주도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3박 4일 서남권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6박 7일 제주+동해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4박 5일 동해안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일본 연합투어

3박 4일 동경 \$1149+항공	3박 4일 오사카 \$1149+항공
5박 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 여 \$1660
-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연합투어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3박 5일 \$4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맛포사원, 플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레킹, 악어농장, 백년버미공원, 태국특산물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6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낭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종점,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애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나트랑/달랏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통탄아트 갤러리, 나트랑 대성당, 야시장, 세일링 클럽, 혼중, 포나카르 사원, 아이 리조트 스파, 달랏 야시장, 달랏대성당, 바오다이 1 궁전, 린푸옥 사원	대만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공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후제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형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애양 국립공원, 자우펀거리	싱가폴 3박 5일 \$85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월드, 핸드스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메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트사섬, 실로소버티
-----------------------------------------------------------------------------------------------------------------------------	-----------------------------------------------------------------------------------------------------	--------------------------------------------------------------------------------------------------------------------	----------------------------------------------------------------------------------------------------------------------------------------	--------------------------------------------------------------------------------------------------------------------------------	-------------------------------------------------------------------------------------------------------------------------

성극 노아 +아미슈마켓 당일
출발: 4/10 **1차** 5/8, 5/15 **\$199**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플래스버그/뉴욕 로맨틱시티 겨울 낭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설경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일일 출발 (단, 사전확인필요)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일일 출발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7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탑여행사 TOP TRAVEL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된 교도관들 6000L 기름창고 폭발 막았다

불길 빠르게 퍼지며 1~3교도소감싸 직원 1200여명인데 방화복 8벌뿐 일부는 고압산소 치료 후 최근 퇴원



지난달 25일 외벽까지 산불이 번진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동. [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지난달 25일 오후 7시40분쯤 신동호(42) 경북북부(청송)제3교도소 교도관은 유류창고를 덮치려는 검은 산불과 마주했다. 불어치는 바람을 타고 불씨가 공기 중에 흩날렸고, 산불은 나무와 잔디를 타고 유류창고를 향해 점점 다가갔다. 보관 용량이 총 6000L인 창고엔 제3교도소 난방용 등유 1700L가 남아 있었다. 창고는 교도소 내부 100여 명이 생활하는 여자 수용동과 가깝다. “여기가 터지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신 교도관은 회상했다.

그를 비롯한 20여 명의 교도관은 소화기와 소화전 호스를 들고 창고를 둘러 저지선을 쳤다. 닿는 모든 곳에 물과 소화 분말을 뿌렸고, 잔불은 발로 밟아 졌다. 코와 입을 감싸려고 가져간 물 묻은 수건도 진화에 썼다. 결국 한 시간여 사투 끝에 창고 주변의 불을 끌 수 있었다. 경북북부교도소엔 이런 유류창고가 5개, 총 3만1600L

의 기름을 보관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사흘 만인 25일 경북북부교도소를 포위했다. 주변을 감싼 광덕산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4개 교도소의 주벽 앞까지 번졌다. 1200여 명 직원이 총출동해 수용자부터 대피시켰고, 산중턱에 위치해 피해가 컸던 제2교도소 수용자 500여 명은 대구교도소까지 이

송했다. 문경배(42) 제2교도소 교도관은 “점심쯤부터 하늘이 붉었고, 오후 6시쯤 맞은편 비봉산에 불이 붙고 30분 만에 교도소 단지 유일한 출입구인 광덕초소 근처에 큰불이 났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출동한 신 교도관은 “아파트 2~3층 높이, 버스 두 대가 연달아 늘어진 넓이었다”고 했다. 40여 명의 교도관이 초기 진압을 시도했으나 거센 산불을 이기지 못했다. 광덕산을 타고 불길은 빠르게 퍼져 제1~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를 감쌌다. 문 교도관은 곧바로 제2교도소로 복귀해 수용자들을 대피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교도소 안에도 매캐한 불냄새가 가득했다. 250여 명의 제2교도소 직원은 절반씩 나눠 수용자들을 운동장 등으로 대피시키고, 불을 끄려 나섰다. 소방당국에는 지원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용자들을 이송할 이동 차량을 곧바로 요청했다. 오후 7시쯤 불길이 2교도소 외벽을 휘감았고, 시야는 2~3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문 교도관은 “솔직히 겁이 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제2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 교도소로 과거부터 조직폭력배 김태춘과 조양은,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등을 수감한 곳이다. 수용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겁먹지 않도록 “꼭 대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교도관들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오후 8시30분쯤부터 이동 차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해 대구교도소로 이송을 시작했다. 문 교도관은 “산불이

퍼진 도로가 모두 통제돼, 1시간30분 거리를 3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했다”고 말했다. 제1·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의 수용자들은 건물 밖 운동장 등에 대피했다. 산불을 진압한 오후 11시쯤 다시 수용동이 수감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안전 책임을 맡고 있는 최진규 제1교도소장은 “의성 산불 발화 이후 경북북부 4개 교정시설장들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매일 회의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시설이 동시에 물을 틀면 얼마나 버틸지 계산을 다 해뒀다. 산불이 닥치자 생활수도 는 잠그고 모든 물을 산불 진화에 썼다”고 말했다. 방화복이 단 8벌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의 헌신적 진화도 큰 힘이 됐다. 일부 교도관은 기도 화상으로 입원해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얼마 전 퇴원했다. 최 소장은 “교도관들이 목숨을 걸고 교도소를 지켰다. 한 교도관은 아흔 노모의 집이 불에 타는데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휘했다”고 했다. 양수민 기자

상법에 ‘직’ 건다던 이복현... 권성동 “짐 싸서 떠나라”

‘상법 거부권’ 뒤 이 원장 거취 논란이 “윤 대통령이면 거부권 안 썼다”

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취 관련 질문에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연락해 (사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

재 등이 이 원장에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문제가 된 건 “주주자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발언이다. 이

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융위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취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정부 내에서 정리된 의견이었다.

이 원장은 또 “4일 대통령이 오시는 지안 오시는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거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거취 결정을 사실상 탄핵 선고 이후로 미뤘다는 풀이가 나온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이 원장이 사직 의사만 전달했을 뿐 사표 제출과 같은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살짝 다쳐도 일단 MRI?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7배

손보사 차 보험 청구내역 보니 작년 상급종합병원 47곳 330건 촬영 같은 시기 한방병원 10곳이 9117건

에서 검사한 횟수는 총 911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A보험사에 청구된 47개 상급종합병원(양방)의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 중증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MRI 검사 건수도 상위 10개 한방병원(9756건)이 47개 상급종합병원(1122건)의 8.7배 수준이었다. 다른 보험사 통계까지 합친다면, 한방병원의 MRI 검사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방병원은 지난해 총 1479건(A보험사 청구 건수 기준)의 MRI 검사를 했다. 이 중 경상환자 검사 건수(1337건)만 90.3%에 달했는데,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MRI 검사 건수보다도 많다. 일부 한방병원이 고가의 MRI 검사를 남발하고, 입원치료까지 권하며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 판단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자

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3580억원) 비중은 23%로 양방 진료비(1조 1978억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한방 진료비는 매년 늘어, 지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6%(1조 3066억원)로 양방 진료비를 뛰어넘었다. 2023년 한방 진료비(1조 4888억원)의 비중은 58.1%에 달했다. 한방병원 진료비는 경상환자에 집중해 있어, 과잉 진료 논란이 따라붙는다.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인당 한방 치료비는 101만7000원으로 양방 치료비(32

만9000원)의 약 3.1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수는 2.5%만 증가했지만, 지급보험금은 87.4% 급증했다. 과잉진료가 많아지면 보험료도 오른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새로 계약하는데 보험사들은 손해율(받은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중)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보험료도 인상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상환자 MRI 검사 같은 한방병원의 불필요한 진료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LOGOS LAW GROUP
GUIDED BY FAITH, ROOTED IN INTEGRITY, SERVING WITH PROFESSIONALISM.

로고스 법률 그룹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Jiyoun Kim, Diane Lee, Jimmy Park, Sam Kim, Joy Lee
세틀먼트팀: Sammie You, Sook Kim

- 비즈니스 / 부동산**
 - 비즈니스 설립 / 매매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라이선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십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NIW 웨이버 / Hardship Waiver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 리커 라이선스 위반 재판
-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법정 상속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틀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703-621-7117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48 Ellicott Center Dr. #103, Ellicott City, MD 21043

“온 산이 불쏘시개로 덮여... 내륙 야산 불이 가장 위험”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의 산불 피해 현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에서 낙동강을 건너 자동차로 20분가량 떨어진 곳이다.

처음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의 북쪽에 위치한 이곳에선 추사로 보이는 농업용 시설물이 온통 불에 탄 채로 시커멓게 잔해를 드러냈다. 화재로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찌그러진 지붕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가족들의 사체는 고스란히 방치돼 있었다. 주변에 매캐한 탄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쪽 구석에 있는 잿더미에선 아직 불이 덜 꺼졌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에서 일주일째 산불 피해 현장을 조사하던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을 이곳에서 만났다. 그는 “전날(지난달 27일) 비가 조금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산불의 기세가 꺾였다”며 “따뜻한 남서풍이 부느냐, 차가운 북서풍이 부느냐는 산불 확산과 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황 소장은 지난 12년간 전국 600여 곳의 산불 현장을 발로 뛰며 산불 발생 원인과 확산 과정, 효율적인 진화 대책 등을 연구한 민간 산불전문가다. 산림학 박사인 그는 산림청 산불방지교육 강사로 전국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300회 이상 산불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황 소장은 “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불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산불 진화대원의 고령화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불 대응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소장과의 일문일답.

따뜻한 남서풍에 산불 피해 커져

-이번 의성 산불은 피해 면적에서 역대 최악이다. 피해가 커진 이유를 뭐로 보나.
“먼저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 강원도 동해안에서 큰 산불이 여러 번 난 적이 있다. 그런데 동해안 산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바다에 막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제한적이다. 이번 산불은 바다에서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이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 경북 의성 산불의 진행 과정과 피해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멀리 떨어진 경북 내륙의 낮은 야산 지대에서 발생했다. 이런 산불이 가장 위험하다. 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서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매우 강하고 빠르게 번져 나간다. 산불 발생 지점이 서쪽 내륙일수록, 지대가 낮을수록 산불 확산의 위험이 커진다고 봐야 한다.”

-의성은 내륙 지역인데 결국 동해안까지 불이 번졌다.

“초기부터 이번 산불이 경북 영덕 해안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처음엔 주변에서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핀잔도 들었다. 의성에서 영덕까지 직선거리로 약 8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역대 우리나라 산불 가운데 그런 전례가 없긴 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이번 산불은 쉽게 잡을 수 없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불바람’이 분다고 할 정도로 산불이 남서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나갔기 때문이다.”

-초기엔 산불이 잡히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재발화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처음 하루 이틀은 산불의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때는 산에 눈도 조금 쌓여 있었다. 눈으로 관찰하면 붉은 불꽃보다는 희뿌연 연기가 많이 보였다. 연료가 완전히 타지 못하고 불안전 연소가 됐다는 얘기다. 그게 위험한 신호였다. 완전 연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불이 붙지 못한다. 그런데 불안전 연소가 이뤄지면 수분이 증발한 상태에서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재발화 위험이 커진다. 그 무렵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왔다. 그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진화대원 고령화에 사기도 침체

지대 낮을수록 산불 확산 빨라져 내륙에서 동해까지 수십km 간다

산불 대응책 근본적 변화 시급해 10만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해야

바짝마른 나무·낙엽은 인화물질 울창한 숲이 기후변화보다 위험

-우리나라는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이 중요한 고비였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일제히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다양한 산불 대책을 내고 예산 지원도 늘렸지만 대형 산불 피해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산불 대책이 포장만 그럴듯했지 현장에선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산불 진화대원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전국에 산불 진화대원이 9600명 정도인데 고령화도 심하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 고령의 지역 주민들이 기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중에 열심히 하는 대원이 있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채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공 일자리 사업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산불 진화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쌓일 틈이 없다. 군대에 비유하면 정규군을 동원해도 쉽지 않은 전투에 나이트 예비군을 투입하는 셈이다. 그나마 인원이 충분치 않으니 24시간운영이 불가능하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안이 있겠나.

“있다.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원이 약 10만 명이 나 되고 조직도 전국 방방곡곡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의용소방대는 법적 정년이 65세여서 고령화 문제도 덜하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 마을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나섰기 때문에 동기 부여도 확실하다. 119 소방시스템은 1년 365일 24시간 가동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산불 지휘 체계 일원화 고려해야

-의용소방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엄밀히 말하면 산불 진화대원은 산림청 소속으로 산불을 끄는 일을 하고,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청 소속으로 주택 등 시설물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한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산불은 금세 바람을 타고 주변 마을로 번지기 때문이다. 일단 산불이 나면 빨리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 소속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할 만하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본은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청이 즉각 대응하는 것으로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다. 산불이 주변 마을로 빠르게 번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는 한국의 산림청에 해당하는 임야청이 맡는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이 사는 마을과 산림 지역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국토 면적이 넓어 여러 기관으로 산불 대응 기능이 분산된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화재공학의 차원에서 엄밀하게 보면 기후변화는 당장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지구 전체로는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기온이 1.5도가량 높아졌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사과 같은 주요 과일의 재배지가 북상하는 등 식물의 생장이 변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 정도 변화로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긴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 산림은 기후변화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떨감의 변화가 산불 위험 키웠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산림에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층이 많이 쌓이고 있다. 과거에 마른 나무를 떨감으로 쓰던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환경이다. 산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지계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거의 아무도 주위까지 않는다. 온 산이 불쏘시개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숲이 울창해질수록 산불 위험은 커진다고 봐야 한다.”

-마른 나뭇가지가 그렇게 위험한가.

“죽은 나무가 바짝 마르면 물이 나무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니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면 나무 표면의 수분이 금세 날아가 버린다. 불쏘시개가 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그러면 사소한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주변에 워낙 연료가 많기 때문에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현장을 모르면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산불의 확산 속도도 빠른 게 사실이다. 소나무에선 휘발성 물질인 송진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의 주종인 소나무를 갑자기 다른 나무로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도 엄청나게 들 어갈 뿐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번처럼 산불 피해 지역에 새로 나무를 심을 때는 불에 잘 견디는 나무를 먼저 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제쳐야 하나, 짓혀야 하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 리그에서 뛰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활약에 밤을 새워 축구구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를 제치고 첫 골을 넣었습니다” 등과 같은 진행자의 해설이 이어지면 밤샘으로 인한 피로가 절로 오는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피하며 돌파하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제쳐다’이다. 그런데 이를 ‘짓혀다’라고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헷갈리곤 한다.

‘제쳐다’는 ‘거지적거리지 않게 쳐리하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축구 경기 등에서 상대 선수를 거지적거리지 않게 쳐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은 ‘짓혀다’가 아닌 ‘제쳐다’임을 알 수 있다.

‘짓혀다’는 ‘의자를 뒤로 짓혀다’ 등처럼 ‘뒤로 기울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커튼을 걷어 짓혀다’에서와 같이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응원가를 불러 제쳐다/ 불러 짓혀다/ 불러 제쳐다”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제쳐다’가 비표준어라는 걸 떠올려 보면 ‘불러 제쳐다’ 역시 틀린 표현이란 걸 알 수 있다. ‘짓혀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막힌 데 없이 해치운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므로 “응원가를 불러 짓혀다”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m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미국 사회의 변화



조원희
경제부 기자

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한인 대학생 정윤수 씨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에 가지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위기에까지 몰려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현재 정 씨는 영주권 박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추방 절차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에 7살 때부터 살아온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나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의 조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심증 질문과 전자 기기 검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미리 시민권을 취득하길 잘했다고 안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시민이 되겠다고 선택한 미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정 씨의 영주권 박탈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고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불법적이며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미국은 동경의 대상 중 하나였다.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항상 미국을 지구를 지키는 국가였다.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와 경제를 가진 선진국이었다. 유학 시절부터 가까운 곳에서 본 미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었다. ‘멜팅팟’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사는 이곳에서 다양성은 미덕의 하나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쇠퇴하는 것 같다. 지난 20년간 미국에 살면서 본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 시민권 선서를 할 때 생각했던 나라와도 차이가 있다. 변화하는 미국을 시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야침에

데스칸소 정원에 만개한 봄



김수영
수필가

참으로 오랜만에 봄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엔 남가주 여러 곳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고통을 당했다. 최근에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토네이도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추위와 재난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코로나까지 걸려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한 터라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거기다가 나이까지 더해가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문학 동우회가 있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서 시 공부하는 시간이야말로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우리를 젊게 만들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준다. 거의 90세에 가까운 문우들이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시를 쓰며 시 공부할 지도 수년이 되었다. 나이가 우리보다 조금 젊은 문우도 있어서 그들과 어울려 더욱 젊어지는 기분이다. 오늘 라카나다에 있는 데스칸소 정원(Descanso Garden)에 문우들과 소풍을 다녀왔다.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넓은 정원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벚꽃은 비가 와서 꽃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볼만했다. 제일 눈길을 끈 곳은 튤립 정원이었

다. 갖가지 색깔로 곱게 핀 튤립이 얼마나 예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땔 수가 없었다. 문우들의 노안에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꽃들과 어울려 활짝 피었다. 모두가 남은 삶을 문학 공부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동역자들이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다.

91세가 된 문우도 지팡이 없이 정원을 활보하고 88세 된 문우는 두 달 전에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는데도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는 것 보고 나 자신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들보다 나이가 아래인데도 나는 워커를 끌고 다니면서 정원 여기저기 구경하며 다녔기 때문이다.

장미꽃은 아직 피지 못하고 봉오리만 보였다. 튤립꽃이 대세를 이루면서 여기저기 만개하여 관광객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흰색, 진분홍

색, 노란색,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튤립 등 다양한 튤립에 정신을 잃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꽃잎 속을 들여다 보니 꽃 수술이 얼마나 예쁘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창조주께 감격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 조각가, 가장 아름다운 멋쟁이 시인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동우회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19세기 영국의 계관시인 낭만파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가 간절히 생각나는 하루였다. ‘내 가슴이 뛴다(My Heart Leaps Up)’이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가슴이 뛴다고 이 시는 시작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러하고 늙은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한다. 어린이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감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때 묻은 어른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장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바라볼 때 경건해 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한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실라 상담할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24) 부동산 정책

노 “하늘 두쪽나도 투기 잡을 것” ... ‘세금폭탄’만 터졌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말 부산 지역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자신이 경제를 잘 꾸려왔다는 말을 강조하다가 불쑥 나온 발언이지만, 무심결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흑역사의 연속이었다. 노무현에게는 가장 뼈 아픈 정책 실패였다. 집권 5년간 무려 30여 차례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차라리 큰소리나 치지 않았으면 달했을 텐데, 수시로 호언장담하는 바람에 혹독한 비판을 자초했다. 말로 매를 벌였다.



2003년 10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 직후 김진표 부총리(왼쪽)는 참여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강남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

(2003년 11월 SBS 대담, 노 대통령)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노무현의 진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집 없는 애환을 몸소 겪은 대통령이니, 때로는 감정이 묻어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도 집이 없습니다. 퇴임 후 새로 집을 사야 합니다. 아이 둘이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모두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절대 못 오르게 내가 잡을 겁니다.”(2003년 11월 충남 언론인 간담회)

그러나 시장은 여의치 않았다. 임기 내내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는 좀을 썼으니 말이다.

참여정부의 과오는 우선 판단 착오에서 출발한다. 전임 DJ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쪽도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세 완화에 더해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장려에 이르기까지...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급기야 전임 정부부터 풀려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 양상을 보이게 시작했다.

첫해 참여정부가 마음먹고 뽑아 든 칼이 ‘10·29 종합대책’이었다. 그 유명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 방침을 위시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등 무시무시한 내용을 망라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단지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우격다짐에 불과했다. 인수위 때부터 이정우를 비롯한 개혁파들이 내세운 ‘부잡집 중과세’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하면서 반짝 효과가 나타나자 이정우는 “참여정부는 10·29 대책으로 먹고산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자랑했다(『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 이런 분위기 속에 노무현도 한 달 뒤인 11월 말, SBS와의 대담에서 “강남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고 큰소리쳤다.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 투기는 잡겠다!”

(2005년 제헌절 5부 요인 만찬,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 과오는 집값 상승을 경제 현상이 아니라 투기 현상에서만 본 것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고질적인 사회악으로 봤다.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키우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해 왔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었다. 노무현은 취임 후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 직속 12개 위원회 가운데 ‘빈부 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맡기고 이정우 정책실장과 김수현 비서관을 여기에 배치했다. 부동산을 보는 대통령과 개혁파들의 시각을 드러낸 배치였다. 이들은 징벌적 과세와 철저한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10·29 대책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주춤했던 시장은 해가 바뀌면서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거래는 끊기고,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2004년 초 경제사령탑이 이현재로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에 수정이 가해지는가 싶었다. 징벌적 과세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 정책적 접근으로 선회하는 조짐이 보였다.

“부총리 제의를 수락할 때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 나간다는 원칙에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게 그의 회고다. 이현재는 세금 일반도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바

람적이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경제보좌관 조윤제 역시 세금에만 집착하는 정책에 생각이 달랐다. 그는 대통령을 이렇게 설득했다. “금융은 상수도, 조세는 하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을 풀어놓고 아무리 세금으로 틀어막은들 부동산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많이 매기는 것이 약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담이 약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이때라도 대통령은 세금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금융 규제 정책을 함께 택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세 번째 과오였다. 길으로는 양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경기를 걱정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들어 2004년 11월까지 금리를 네 차례 낮췄는데,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는 나쁜 영향을 줬어요. 뒤늦게 금리를 올렸지만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한은 총재를 지낸 박승의 진단(회고록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이다. 한 쪽으로는 세금을 때리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던 셈이다.

아무튼 참여정부는 종부세가 발표되

정권별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



고 다른 대책들이 합세하면 2005년부터 부동산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웬걸, 정부를 비웃듯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투기 불길이 더 강하게 번졌다. 280만 평에 2만9000세대가 입주하는 판교 신도시 건설로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는데도 집값은 폭등을 거듭했다. 마침 이현재 부총리도 청와대 개혁파들과의 갈등 끝에 사표를 내고 떠났다. 3월에 세 번째 부총리로 취임한 한덕수에게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이 이렇게 귀띔했다.

“성장을 낮다고 청와대가 책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부동산을 못 잡으면 질책이 있을 겁니다.” 이후 노무현과 청와대는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갔다. 대통령의 투지는 여전했다. 그해 제헌절 만찬 연설에서 노무현이 외쳤다.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 투기는 잡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2005년 8·31 대책, 한덕수 부총리)

참여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종합 대책이 집권 3년째의 8·31대책이다. 재정·건설교통부 등 경제 부처 합동 대책반은 200만 평 규모의 위례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투기지역 담보 대출 제한 등 규제 강도는 한층 높였다.

세제 부분은 청와대가 별도로 만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됐고, 개인별이었던 과세 기준을 가구별 합산 과세로 바뀌버렸다(이 부분은 3년 뒤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시 올리고 취득 및 등록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정부 스스로 ‘최강 대책’이라고 했다.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기세였다.

발표를 앞두고 정부 대책반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 발표 문안을 보내달라는 것. 한덕수 부총리는 8·31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손질해서 보내준 발표문을 읽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추가돼 있었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세금 폭탄? 아직 멀었다.”(2006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포지엄, 김병준 정책실장)

시장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금 공세가 강화될수록 돈은 돈 되는 지역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뚝뚝한 한 채’를 위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목동, 분당과 평촌, 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에 투자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는 거침이 없었다. 이즈음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병준의 입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와서 논란을 불렀다. 폭탄을 투하하듯 종과세로 투기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청와대 분위기를 대변한 단어였다.

김병준은 세금 폭탄뿐 아니라 다른 정책 수단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 전문가로서 당시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던 김진표는 김병준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폭탄은 일제 시대에도 안 쓰던 표현”이라면서 “자칫하면 민심이 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종부세=세금폭탄’이라는 인식이 민심이 됐다.

“집 사지 마라!”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세금 폭탄’ 세례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늦게나마 돈을 줄을 묶는 금융 규제를 동원하면서 간신히 고삐가 잡히기 시작했다. 2006년 11월, 집 담보대출 한도를 확 낮추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금리도 2007년에는 5% 선으로 끌어올리는 등 돈을 묶는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제동이 걸렸다.

이 대책이 나올 무렵, 홍보수석 이백만이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질타로 결국 사표를 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노무현도 두 달 뒤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경제사령탑 권오규는 “부동산 정책에 말이 다소 앞섰다. 앞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비로소 자세를 낮췄다.

노무현은 자서전 『성공과 좌절』에서 부동산 실패에 대해 국회와 언론을 탓했다. 그러나 핑계일 뿐, 기본적으로 시장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고, 징벌적 과세 정책을 내세워 강공 일변도로 시장을 때려눕히려 했다. 애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런 노무현의 실패를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똑같이 되풀이했다. 소신이 있었을까, 오기였을까.

이정규·송병수·고성표·박유미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아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티비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2300 Jo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 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시 설

국회, 승자독식 폐해 막을 '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나서라

내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집무실로 복귀할지에 따라 한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진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엉망이 된 정치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유지된 6공화국 체제에 조종(弔鐘)을 울린 사변이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당시로서 가장 절실했던 '대통령 직선제'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헌법은 이 땅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사회는 엄청나게 복잡해졌고 국민 의식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속속 등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38년 전에 만든 틀에 갇혀 있다. 시대적 소임이 끝난 헌법이 국가발전의 질곡이 되고 만 형국이다.

현행 헌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정부 권력은 100% 그의 몫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47.8%의 민심은 국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이처럼 유권자의 절반을 구조적으로 소외시키는 시스템에선 정치·사회적 갈등이 혐악해지고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대통령은 늘 집권 초엔 절대권력을 움켜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반대자들이 늘면서 대통령은 고립되기 시작한다. 종내에는 여당조차 반기를 들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레임덕 신세가 된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다.

여소야대가 되면 해결책이 없는 것도 헌법의 중대 결함이다. 38년 전에 당시로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소

야대 상황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수시로 공직자를 탄핵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을 거부권으로 봉쇄하면서 국정이 마비된 게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었다. 87년 개헌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중 4명이 구속당했고, 1명은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사람도 3명이나 된다. 성공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이대로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전임자들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건 개헌을 둘러싼 현직 대통령과 차기 주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개헌 추진의 적기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각·각하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복귀 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헌정개혁포럼은 새 헌법에 담을

시대정신으로 '권력 분산'을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4년 중임제 ▶행정을 총괄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포럼이 마련한 개헌안의 골자다. 과도기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내각제로 이행하는 시나리오다. 아무쪼록 여야가 나라의 새 틀을 짜는 데 포럼의 제안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임기 5년을 보장하고 2030년부터 새 헌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이었지만 이게 개헌의 씨앗이 된다면 역사적인 전화위복이다. 헌재 탄핵 판결 이후에 여야는 즉각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길 바란다. 특히 주요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시대적 소임 끝난 헌법이 국가발전 질곡돼 이대론 차기 대통령도 비극 반복할 수밖에

헌재 결정 불복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 발언 멈춰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 주변에선 철야집회가 시작됐고, 선고일인 4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헌재 반경 150m를 경찰 버스로 막아 '진공 상태'를 만들었고, 선고 당일엔 갑종 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중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불복을 부추기는 선동 발언을 하고 있어 극히 우려스럽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천명해야 한다"며 불복과 저항을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기각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은 역사적인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언급했다. 자기 뜻과 다른 선고가 나온다고 불복과 저항을 말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헌재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탄핵 반대 측도 다르지 않다.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적 분노가 대규모 군중 시위 등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재판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인께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더는 선동의 언어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차분히 헌재의 선고를 지켜봐야 할 때다. 정치권의 책무는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경찰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평화적 의사표시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것, 자기희생을 마다치 않는 것, 비겁하지 않은 것 그게 보수의 미학이다. 모럴 헤지드(도덕적 헤이)를 싫어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다. 왜 보수 대통령이 탄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는가. 보수 진영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에 미래가 있다.

보수층은 진보 진영의 집요한 탄핵 시도를 지적한다.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남 탓만 할 게 아니다. 상당 부분은 보수 정권 스스로 자초한 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국정농단 사태도 정권 내부에서 자라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위기도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출판 핵'과 입법 폭주를 문제 삼는다. 실령 그렇다 해도 비상계엄은 국민 다수가 용납하지 않는 극한의 수단이다. 근 석 달째 약 60%를 유지하는 탄핵 찬성 여론이 그걸 말해준다(한국갤럽).

보수 진영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20%포인트 정도 높기도 하지만(3월 넷째 주, 53% 대 34%),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에선 2.6배나 된다(62% 대 24%).

뺏속까지 '자유 우파'를 자처하는 퇴직 관료 한 분을 최근 만났다. 광화문과 여의도 집회에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에 잔뜩 고무돼 있었다. 그는 2030세대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사(20대 47% 대 28%, 30대 55% 대 23%)는 믿을 수 없어 했다.

중도와 젊은 층이 떠난 보수 진영의 미래가 어떨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보수 진영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겪고도 민주주의와 주권재민(主權在民)에 대한 이해와 체화(體化)가 부족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반대 세력과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가장 기울이지 않은 대통령으로 꼽힐 것이다.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게 계엄이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궤변이다.

보수에 중요한 덕목이 '책임감'이다.

하지만 윤 정권은 책임지는 것에 인색했다. 159명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정부 고위직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도 진상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태원 참사 일주일여 뒤 윤 대통령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자신의 측근과 부하들을 감쌌다. 느닷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이후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로 치달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환자들만 애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 윤 정권 중간평가 성적을 떠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당연했다.

반복되는 보수 대통령 탄핵심판 민주주의·주권재민 체화 부족 책임져야 할 때 책임져야 보수

그럼에도 대통령실 핵심 참모 대부분은 자리를 지켰다.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그대로였다. 지난해 연말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물러나진 않았다.

윤 정권에서 고위직은 과오가 있어도 문책당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는 냉소가 파다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공직의 신성함과 명예는 추락했다. 지금 공직사회의 사기가 바닥인 것은 이것과 무관치 않다. 역시 압권은 12·3 계엄이다. 지난 넉 달간 온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계엄 버튼을 누른 대통령도, 그것을 막지 못한 여당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윤 정권은 자칭 보수 정권인데, 정작 '보수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결과가 민심의 이반이다. 역사는 지금 보수 진영에 묻고 있다. 무엇이 진짜 보수냐고.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1일 1만 5천부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FINANCIAL TIMES, 일본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中国日报)
본사 구독: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신속 지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 빌딩 3층**



백성호 공인회계사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PR. 3rd - APR. 10th, 2025



THE HOUSE MANDU Dumpling
그 집 만두 왕교자
 ALL VARIETIES/20-24 OZ

MUST BUY 2
2\$9.99
 FOR



TONGTONGBAY Dried Pollack
통통배 북어채

SPECIAL PACK
5 OZ + 5 OZ
\$11.99 ← ~~\$1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pril 3, 2025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리모델링'은 고칠 필요 없다는 안도감 줘

집값 올리는 매물 광고 키워드 11개
평균 5만 달러 들지만 집 밸류 3.7% 상승
베네치안 프라스터·습스톤 카운터톱 인기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질로'가 지난해 매물로 나온 주택 200만 채 이상을 분석한 결과,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매물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향을 발견했다. 질로의 어맨다 펜들턴 주택 트렌드 전문가가는 "이번 분석에서 두드러진 점은 과감한 디자인이 구매자들에게 더욱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시장에서는 친밀원물적인 디자인보다 독특한 소재와 마감재를 사용한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대리석이나 화강암 카운터톱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석회암이나 습스톤(soapstone, 활석) 같은 소재가 인기가 더 높다.

또 일반적인 페인트보다 베네치안 프라스터(Venetian plaster)로 마감된 벽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펜들턴은 "이러한 요소들은 주택 스타일이 오가닉 모더니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오가닉 모더니즘은 자연 소재와 유기적 형태를 사용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대표적인 예가 자연석과 다양한 목재, 질감이 강조된 벽이다.

질로의 조사 결론은 주택 매물 설명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면 예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릴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매물 설명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질로 예상 가격보다 3.7%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집 팔 때 유리한 11

- 가지 핵심 키워드다.
- ▶리모델링
-평균 비용: 1만9488~8만8406달러(평균 5만2272달러)
-추가 집값 상승: 3.7%
매물 설명에 리모델링이란 단어가 있으면 집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을 준다. 최근에 새로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판매에도 유리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 ▶웻룸(Wet Room)
-평균 비용: 1만3000달러(공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큼)
-추가 집값 상승: 3.3%
단순한 스파 분위기를 넘어서 더 아늑하고 우아한 욕실인 '웻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욕실 중 한 곳을 웻룸으로 바꾸면 판매에 이점을 가질 수 있다.
 - ▶화이트 오크 바닥(White Oak Flooring)
-평균 비용: 4726달러(스퀘어피트당 4-8달러)
화이트 오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답다. 열은 브라운부터 붉은색을 띠는 브라운까지 색조의 폭이 넓다. 단단해서 긁힘이나 마모에 강하다. 매물 광고에 강조하면 판매와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다.
 - ▶티크(Teak) 목재
-평균 비용: 바닥재 기준 스퀘어피트당 11~20달러
티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



야외 주방은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간단한 시설만 갖춰도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특히 수분과 해충에 강해 고급 가구와 외부 장식에도 많이 사용된다. 가격이 비싸지만 견고해서 긴 목재를 사용해야 할 때 유용하다. 매물 설명에 넣을 가치가 충분하다.

- ▶베네치안 프라스터(Venetian Plaster)
-평균 비용: 700달러(규모에 따라 585~815달러)
최근에 집값을 강조한 벽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베네치안 프라스터로 마감한 벽은 이런 트렌드의 대표적인 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 맞춤 제작했다는 고급스러움도 강조할 수 있다.
- ▶습스톤 카운터톱(Soapstone Countertop)
-평균 비용: 스퀘어피트당 70~120달러(시공비 포함 2100~7200달러)
촉감이 비누처럼 부드럽다고 해서 습스톤으로 불린다. 대리석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청소하기도 쉬워 최근 인기가 높아졌다. 열에도 강하다. 디자이너와 요리사에게 일찍부터 인기가 좋았다. 매물 설명에 넣을 가치가 있다.

- ▶야외 샤워장
-평균 비용: 1000~5000달러
해변 주택 분위기를 선호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나면서, 야외 샤워장이 있는 집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 ▶블루스톤 패티오(Bluestone Patio)
-평균 비용: 스퀘어피트당 6~14달러
패티오에는 보통 벽돌이나 콘크리트, 돌을 사용한다. 최근 돌 중에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자연석인 블루스톤이 인기를 끌고 있다.
- ▶쿼츠 카운터톱(Quartz Countertop)
-평균 비용: 스퀘어피트당 50~200달러
카운터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는 습스톤이지만 쿼츠도 여전히 고급 재료로 인정받는다. 부엌과 욕실에 사용하면 가치가 있다.
- ▶야외 주방
-평균 비용: 6348~2만6903달러
야외 주방은 조리과 식사 외에 손님 맞이 공간도 확장해 준다. 형태와 시설은 매우 다양하지만 간단한 야외 주방도 집값을 올린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뉴스타부동산**
일등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숙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선박이 불타면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88기 4월 15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p>SOLD</p> <p>3/15 오후 1시~4시 26977 Crusher Dr. Chantilly, VA 20152 \$1,500,000 6600 sqft의 고급집, 모델홈, 집 뒷편으로 아주 넓은 호수, 모델홈보다 더 모델홈 같은 집</p>	<p>1</p> <p>\$770,000 센터빌 싱글홈 방3, 화장실 3+1,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p>	<p>SOLD</p> <p>3/15 오후 10시~12시 7703 Lafayette Forest Dr. #22, Annandale, VA 22003 \$369,900 애넌데일에 있는 고급 콘도. 방2, 화장실2 집 전체 완전히 다 새것으로 수리</p>	<p>1</p> <p>\$640,000 워싱턴 디시 NW 콘도 방2, 화장실 2, 차고 1 좋은 환경에 있는 고급 콘도. 메트로 근처</p>
버지니아			
<p>2</p> <p>\$875,000 센터빌 싱글홈 방4, 화장실 3+1,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비대, 벽돌 집</p>	<p>3</p> <p>\$1,00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5, 화장실 3+1, 차고 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p>	<p>4</p> <p>\$1,200,000 비엔나 타운홈 방4, 화장실 3+1, 차고 2 골프, 벽돌집, 5년된 아주 이쁘고 고급스러운 집</p>	<p>1</p> <p>\$720,000 저먼타운 싱글홈 방6, 화장실 4, 차고 2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부엌, 넓고 고급스러운 집, 좋은 가격</p>
메릴랜드			
<p>2</p> <p>\$950,000 클락스버그 싱글홈 방4, 화장실 4+1, 차고 2 18년된 벽돌집, 새집같이 잘 가꾸어진 집</p>	<p>2</p> <p>\$1,100,000 워싱턴 디시 NW 콘도 방2, 화장실 2, 차고 1 전통적인 양식의 고급 콘도, 고급 동네에 위치</p>	DC	

자연 지형 그대로 살린 섬세한 코스·해저드 하나의 회원권으로 일본 골프장 2곳 즐긴다

우구이스노모리 평생회원권

창립 50여 년 된 일본 중견기업 녹지개발(주)이 해외골프전문기업 (주)케이투골프와 손잡고 '우구이스노모리 골프클럽&호텔 바토'와 '우구이스노모리 골프클럽 미토' 등 두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우구이스노모리 평생회원권'을 모집한다. 케이투골프 김명식 대표는 "일본에서 골프텔과 온천이 있는 곳은 30여 개로 드물다"며 "우구이스노모리 골프클럽에는 호텔과 온천이 함께 있고,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해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혼슈 중부 도치기현에 있는 '우구이스노모리 골프클럽&호텔 바토'는 27만평의 대지에 18홀로 조성됐다.

세계 100대 골프장 디자이너 설계

일본 혼슈 중부 도치기현에 있는 '우구이스노모리 골프클럽&호텔 바토'는 27만평의 넓은 대지에 18홀(파 72, 6715야드)의 코스가 조성돼 있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섬세한 코스와 해저드, 전략적으로 배치된 벙커와 나무, 잘 관리된 페어웨이를 자랑한다.

세계 100대 골프장인 두바이 에미리트 골프클럽을 설계한 미국 코스 디자이너 칼리튼이 설계를 맡았다. 지난해 4월 한 회원이 16년 홀에서 40년 된 산삼을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토질이 우수한 청정지역임이 확인된 셈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온천 지역으로 겨

울에도 따뜻한 4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나리타공항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져 있다. 나리타 공항은 인천, 김해, 대구, 청주, 무안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다. 3일로 구성된 호텔 바토는 클럽하우스와 연결돼 아름다운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호텔에는 노천탕, 대욕장 등 온천이 마련돼 라운딩 후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다.

그린피부터 온천호텔 숙박, 조·중·석식까지 포함

일본 이바라키현에 있는 '우구이스노모리 골프클럽 미토'는 18홀(파 72, 6711야드)로 조성됐다. 자연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구릉코스로 설계됐으며 전략적

인 공략법이 요구된다. 그린, 페어웨이, 티잉그라운드 등 구부러진 잔디가 심어져 겨울에도 좋은 컨디션을 자랑한다. 이바라키 공항에서 약 30분, 나리타 공항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져 있다.

회원 예약은 녹지개발(주)이 100% 지분 투자한 한국사무소인 (주)우구이스노모리코리아가 맡아 관리한다. 회원권은 ▶골드(기명 1인+동반인 1인) 1200만원 ▶로얄(기명 1인+동반인 3인) 1800만원 ▶다이아몬드(무기명 4인) 2500만원 등 세 가지다. 하루 체류비는 주중 10만원, 주말 12만원이다. 그린피, 카트비, 온천호텔 숙박, 조·중·석식이 포함돼 있다.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전원 감싼 아파트, 서커스와 로열 크레센트

잉글랜드의 바스(Bath)는 이름 그대로 영국 유일의 온천 도시다. 로마 점령기 때 온천으로 유명했던 바스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세기 후반, 다시 최고의 휴양지로 인기를 끈다. 한적했던 중세 시골에 유력 은퇴자들과 관광객이 급증하니 저택과 호텔의 수요가 폭발했다. 고밀도



집합주택이 필연적이었으나 휴양지로서 전원적 환경도 이루어야 했다.

바스의 건축가, 아버지 존 우드(1704~1754)는 도시 가운데 정방형의 공원을 만들고 그 네 모서리에 7개 동의 테라스하우스를 세웠다. 테라스를 가진 3개 층의 우아한 개별 주택들을 붙여 지은 이 도시형 고밀 집합주택은 날개 돋듯 분양에 대성 공했다.

이 '퀸 스퀘어' 계획은 공원과 도시주택을 통합 개발한 최초의 사례였고, 이후 조지아 시대 고급 도시주택의 모델이 되었다.

이어서 퀸 스퀘어 북쪽에 원형 광장을 포함한 '서커스' 주거단지를 개발했다. 3개의 도로가 만나는 원형 광장 안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그 외곽에 세 동의 원형 테라스하우스

를 세웠다. 사업 시작 직후 타계한 이 계획을 아들 존 우드(1728~1782)가 이어서 완공, 역시 분양에 성공했다.

아들 우드는 서커스 서쪽에 '로열 크레센트'라는 초승달 모양 테라스 하우스를 세우게 된다. 남쪽 언덕 아래로 광활한 초

원과 무성한 공원을 감싸 안은 모습으로, 총 30호의 3층 저택들을 연립한 형식이다. 아들 우드는 남쪽 정면만 디자인해 필지를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 건축가들이 계획해 뒷면은 높이도 형태도 제각기다. 정치가, 예술가, 제독, 그리고 공작까지 입주해 '로얄'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로마 유적 위에 세운 조지안 양식의 온천장으로 유명했던 바스는 우드 부자의 노력으로 정사각형 퀸 스퀘어, 원형의 서커스, 초승달형 로열 크레센트로 연속되는 그림 같은 전원도시로 발전했다. 도시와 건축과 조경이 일체화되고 삶의 질 고양과 투자 성공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도 잡았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알아서 물건 사고 식당 예약...아마존도 'AI 비서' 내놔

아마존 '노바 액트' 공개

"침실2, 욕실1 집 찾아줘" 명령하자 스스로 마우스 움직임도 검색해 딱~ 네이버·카카오도 서비스 준비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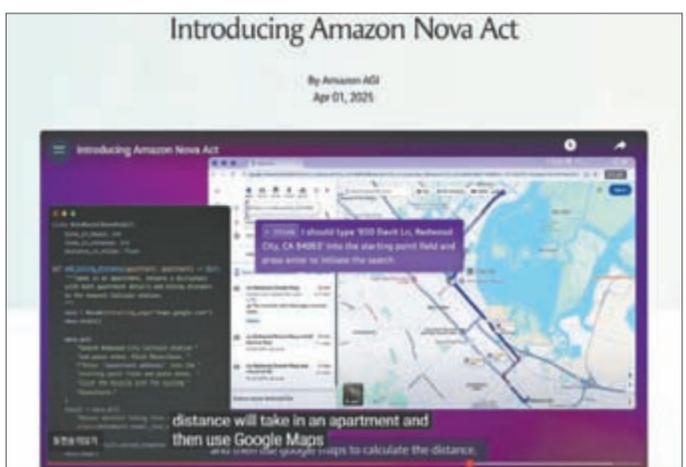
아마존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비서)를 선보였다. 챗봇에서 시작된 빅테크 간 생성 AI 수위와 경쟁 전선이 AI 에이전트로 확장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용자 대신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노바 액트(Nova Act)'를 공개했다. 노바 액트는 알아서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을 예약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다. '연구용 미리보기'로 공개된 이번 AI 모델은 아마존의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에서 처음 개발한 모델이다. 아마존은 이 모델을 최근 업그레이드된 AI 음성 비서인 '알렉사+'(플러스)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 시연자가 "미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티에서 침실 2개, 욕실 1개짜리 아파트를 찾아줘"라고 명령하자 노바 액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스스로 검색어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아파트 추천 목록'을 만들었다. 여기에 "추천 목록 가운데 직장에서 자전거로 통학하기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찾아달라"하자 거리 순으로 정렬했다.

아마존은 노바 액트가 오픈AI의 '오퍼레이터', 앤스로픽의 '컴퓨터 유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크린에 표시된 텍스트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아마존에 따르면 노바 액트는 스크린 텍스트 상호작용



아마존의 노바 액트가 사용자 취향에 맞는 아파트를 스스로 검색하고 있다.

(ScreenSpot Web Text) 테스트에서 94%의 성능을 기록했다. 앤스로픽(90%)·오픈AI(88%)보다 높은 수치다. AI 패권 경쟁에 참전한 빅테크들은

수익화 방안으로 'AI 에이전트' 개발에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인터넷 브라우저가 PC 시대 기본 도구가 됐듯이, 앞으로 펼쳐질 AI시대엔 AI 에이전트

가 기본 도구가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다.

국내 기업들도 AI 에이전트 시장에 속속 뛰어어들고 있다. 네이버는 '온 서비스 AI' 전략 기조 하에 AI 에이전트를 각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주총회 당시 "중장기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것"이라며 "특히 커머스 부문에서 지금껏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커머스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도 AI 에이전트 서비스 '카나나'를 준비 중이다. 국내 플랫폼 한 관계자는 "플랫폼마다 구체적 방향성은 다르지만 현재 AI 서비스보다 진보한 AI 에이전트가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1610 Westmoreland St, McLean, VA	NEW		
16309 Sandy Branch, Woodbridge	COMING SOON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ELL		
1474 Hampton Hill, McLean, VA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ELL		
10** Salt Meadow, McLean	SELL		
매매 및 렌트			
1474 Hampton Hill, McLean, VA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ELL		
10** Salt Meadow, McLean	SELL		
사업체 매매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할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의 30여제 더 있음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401(k) 플랜 잘 설계해야 혜택 유지

세이프 하버 전략

401(k) 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ing NDT)다. 이 테스트는 401(k) 플랜이 특정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게 운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다. 국세청(IRS)은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HCE(고소득 직원)의 일부 적립금을 환수해야 할 수 있고, 플랜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비차별 테스트 종류

비차별 테스트는 총 세 가지다. 첫째는 ADP(Actual Deferral Percentage) 테스트다. 이 테스트는 직원이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얼마나 적립했는지를 기준으로 HCE와 NHCE(비고 소득 직원) 간 차이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NHCE들의 평균 적립률이 4%일 경우, HCE들은 최대 5%까지만 적립할 수 있다. NHCE 평균이 2% 미만일 경우 HCE는 2배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1.25배 또는 1%포인트 차이 내에서만 허용된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HCE의 적립금을 일정 부분 반환해야 하므로 실무에서 중요한 변수다.

둘째는 ACP(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테스트다. 이걸 직원의 세후 적립금과 고용주의 매칭 기여금을 기준으로 한다. Roth 401(k)처럼 세후로 납입하는 경우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기여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윤 공유(Profit Sharing)는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HCE와 NHCE의 기여 비율 차이를 제한하는 구조로, 기준은 ADP 테스트와 동일하다. 이 테스트도

실패 시 HCE의 매칭 기여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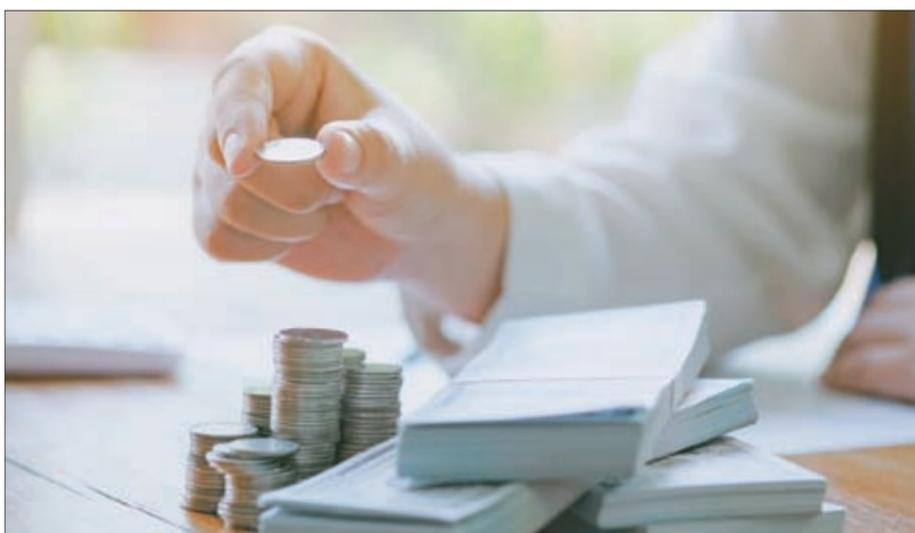
셋째는 탑헤비(Top-Heavy) 테스트다. 여기서는 플랜 전체 자산 중 사주나 간부처럼 핵심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 핵심 직원은 일반적으로 회사 지분 5% 이상 보유자,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2024년 기준 22만 달러)이고 1% 이상 지분을 가진 직원, 고위 경영진 등이다. 이들이 전체 플랜 자산의 60%를 초과하면 '탑헤비' 플랜으로 간주하고, 고용주는 모든 NHCE에게 급여의 최소 3%를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통과 방법

세 가지 테스트를 매년 통과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다. 특히 직원 수가 적고, HCE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자주 실패한다. 이를 때 가장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플랜이다.

세이프 하버는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를 약속하면 ADP와 ACP 테스트를 자동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기본 매칭(Basic Match), 둘째는 강화 매칭(Enhanced Match), 셋째는 3% 비매칭(Non-Elective)이다. 이 중 많은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이 3% 비매칭 방식이다. 이는 직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주가 급여의 3%를 모든 직원에게 무조건 적립해주는 구조다.

3% 비매칭 세이프 하버는 실무상 탑헤비 테스트까지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윤 공유다. 세이프 하버만 있다면 탑헤비 테스트가 면제되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윤 공유를 제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핵심 직원에게 돌아가는 적립금이 늘어나면서 플랜 자산 내 그들의 비중이 60%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이프 하버를 적용하



401(k)의 비차별 테스트 통과 예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반드시 통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ADP·ACP·탑헤비 통과 못 하면 전체가 불이익받아 테스트 면제 세이프 하버 중소기업·스타트업서 인기 이윤 공유 더한 콤보플랜 도입으로 세제 혜택 극대화 참여 구조·자산 배분·매칭 방식·추가 적립금 따져봐야

더라도 탑헤비 테스트를 피할 수 없다.

ACP 테스트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세이프 하버를 도입하면 ACP까지 자동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3% 비매칭 방식만 쓰면서 세후 적립이 많은 직원이 있을 경우 테스트가 여전히 필요하다. 반면 매칭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CP 테스트도 자동 면제된다. 결국 세이프 하버라고 해도 그 구조에 따라 어떤 테스트가 면제되는지는 달라진다.

▶콤보 플랜

많은 중소기업 사이에서 '콤보플랜(Combo Plan)' 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비차별 테스트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구

조의 플랜이다. 3% 비매칭세이프 하버에 이윤 공유와 현금 잔고 플랜(Cash Balance Plan)까지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고소득 직원들에게 유리한 한도를 제공하면서도 플랜의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주나 간부진의 자산 비중이 높아지면 탑헤비 테스트를 면제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스트 통과 여부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ADP 테스트는 세이프 하버를 도입하면 항상 면제된다. ACP 테스트는 세이프 하버가 매칭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에만 면제된다. 그런데 매칭 세이프 하버 방식을 쓰면 결

과적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적립해줘야 하는 필요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탑헤비 테스트는 3% 이상 비매칭 적립이 있을 경우 대부분 면제되지만, 이윤공유 적립이 포함되면 테스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콤보 플랜을 통해 사주나 간부 직원들을 위한 적립금과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매칭세이프 하버를 활용하고 이윤공유 적립을 최소로 늘려주는 방식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401(k) 플랜 설계는 단순히 적립률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고소득 직원의 참여 구조, 전체 자산 배분, 매칭 방식, 세후 납입 여부, 그리고 추가 적립금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 세이프 하버는 효과적인 도구지만, 상황에 따라 테스트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구조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적립 이상의 전략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제 혜택도 지키고, 직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켄 최이퍼스 자산관리대표

저축 안 하던 미국인, 경기침체 대비 시작?

낮은 저축률과 왕성한 소비로 유명한 미국 가계가 달라졌다. 씹씹이를 줄이고 돈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다.

31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 가계의 2월 저축률(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

액)은 4.6%로 2024년 6월(4.8%)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성향이 강한 미국은 원래 저축률이 2~3%대로 낮게 유지될 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금융자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저축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전 미국 저축률이 치솟았던 시기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다. 2020년 4월 32%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저축률도 꾸준히

내려가 지난해 말에는 3%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3.3%까지 내려갔던 미국 가계 저축률은 올해 1월 4.3%로 다시 올랐다. 2월에는 5%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미국 가계의 지갑을 다시 닫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상호관계 등으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자 일단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다. 소비자신뢰지수는 미국 내 5000여 가구의 경기 예측을 지

수로 만든 것인데, 100 이하면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소비자신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CB가 집계한 소비자 기대지수도 같은 기간 9.6포인트 하락한 65.2를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단기 경기 전망을 의미하는 소비자기대지수가 80을 밑돌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된다. 관세정책 후폭풍으로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급락했다는 점도 소비 하락을 부른 요인 중 하나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미국 가계는 주가가 하락하면 소비를 줄이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미국 가계들이 돈을 쓰기보다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향후 소비 관련 지표 둔화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경기 부양책으로 쓸 수 있는 통화정책(금리 인하)이 아직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다.

김남준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 M

Comer Lot
Many Upgraded

웃브리지 타운홈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 Annandale 싱글 홈 \$890,000
- * Springfield 싱글 홈 \$800,000
- * South Riding 싱글 홈 \$1,2M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4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종교담당관실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교계 관계자와 기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수적 기독교 색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백악관 X 캡처]

종교·정치 새로운 시대 들어섰나

백악관 종교담당관실 신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 종교담당관실(Faith Office)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종교적 권리 보호라는 평가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종교담당관실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서 종교단체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교담당관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차별을 조사할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종교자유위원회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폼 본디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연방정부 내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모든 차별과 편향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와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학교와 군대, 정부, 직장, 병원,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의 뜻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단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낙태 반대 운동가 폴렛 할로우가 낙태 클리닉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은 단순히 평화롭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며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할로우를 포함한 23명의 낙태 반대 운동가를 사면했다.

종교담당관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보수 기독교 진영 ‘종교권리 보호’ 환영 정교분리 위협·특정 종교 편향 우려도

을 내놓은 것이 아닌 만큼 정치와 행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종교담당관실은 종교 단체와 정부 기관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종교 단체의 역할 확대와 전통적 기독교 가치 옹호,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 영역도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등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담당관실이 여러 행정부처와 업무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신앙 기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를 놓고 종교와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관측은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새로운 법적·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보수적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연방정부 내 신앙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오랜 과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종교담당관실이 진보적 정책으로 기독교적 가치가 소외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페퍼디안대학의 마이클 헬렌드 법대 교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헬렌드 교수는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태스크포스 설립은 의미 있는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미국생활조사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약 60%는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교분리를 위협하거나 특정 종교에 편향된다는 불안한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루터교계 사회복지 기관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의 엘리자베스 이튼 총회장은 교회의 재산을 넘기라는 로마 황제의 요구에 교회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성 로린스의 일화로 대응했다.

J.D. 밴스 부통령의 경우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를 겨냥해 “불법 이민자 재정착 지원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받는데 정말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걱정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들은 종교담당관실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종교담당관실 수장에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가 임명된 부분도 논란이다. 화이트-케인 목사는 신앙을 통해 물질적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변영의 복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변영의 복음’은 정통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로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욕망 없애고 무소유 되면 해탈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불교선 번뇌 부르는 욕심 경계 중용 “욕심 버려야 하느님 마음” 디오게네스 “욕심 없이 즐거워라”

실타르타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실타르타가 태어날 때, 점괘는 인도를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위대한 종교인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 점괘를 본 왕은 실타르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높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젊은이가 되었을 때, 말을 타고 성안을 둘러보면서 처음으로 늙은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시체를 보고는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시름에 빠졌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출가(出家)를 결심한다. 그의 아들은 나후라였는데 훗날 붓다를 따라 머리를 깎고 수행에 정진하여 붓다의 제자가 되고, 아라한(깨우친자)이 된다.

아비인 붓다가 물려준 유산은 보물도 다른 재물도 아닌 정신수양을 일깨운 것이었다. 붓다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인간 속세의 생로병사를 이겨내는 수단으로 깨달음을 얻도록 중생들을 교화시켰다. 붓다는 6년간의 고행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제행무상이라 흘러가고, 마음이 여려한 무심의 상태에서 우리는 늘 현실을 주시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실타르타는 인생은 결국 고난의 연속이므로 그 역경 속에서도, 명상을 통하여 무소유의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결국, 기독교는 사랑과 봉사를 베풀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불교는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온갖 욕망과 잡념을 없애고, 무소유로 되면 윤회하지 않고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서는 것을 최선으로 본다. 이것은 불생(不生)을 의미한다. 즉, 진여(眞如)의 상태. 진여는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갑자기 생길 것이 아님을 뜻한다.

불교는 공자의 유교나 노자의 도가와 비슷한 시기에 전파된 종교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마음속의 번뇌를 털어버릴 것을 요구한다. 번뇌

는 욕심과 그릇된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니,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으니 수양으로 극복하길 교화한다. 불교에서는 인(因)과 연(緣)을 중시한다. ‘인’이 직접원인이라면 ‘연’은 간접원인이다. 가령,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인데, 부모가 직접원인이라면, 그 부모는 또 다른 이유로 서로 맺어졌으니 결국, 우주만물은 상호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된다는 것이다. 즉, 유위(有爲)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만든 사물이나 존재물이기 때문에 모두 인연의 구속을 당한다. 신이 있어서 우주와 만물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생성되었다고 교화한다. 그러므로 인간 모두는 원래 부처이며, 누구나 부처로 돌아갈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서 중의 하나인 중용에서는 하느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과 만물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주 만물은 하나라고 교화한다. 단, 욕심을 버려야만 된다는 단서를 단다.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성인들이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신기할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들보다는 시기적으로 약간 뒤의 성인이나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었고, 그의 제자였던 디오게네스는 견유학파(犬儒學派)를 이루었는데 개처럼 욕심 없이 지금 순간을 즐기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였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재물이나 식량을 비축하려 하나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면, 인간처럼 비축하지 않은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개들처럼 밖에서 잠을 자고 걸식도 했다. 그러나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절제된 자유를 누렸다. 종교철학이든 일반철학 사상이든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박검진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술경영학(MOT)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반도체 특허협상팀 팀장, 호서대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거쳐 현재 콜라보기술경영연구소 대표.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2025 주택 동향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주택 매물 부족,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부정적.

주택 구입 전략!

1. 주택 대출 금액을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2년치)
2. 주택 모기지 납입능력 금액을 책정한다.
3. 구입금액설정후 구입지역을 설정한다.

* 여러각도에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셀러 집 판매 전략!

- ★ 아직도 매매 물량이 부족한 시기라
집 팔기 좋은 시점입니다.
- ★ 셀러를 대변하는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탠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찬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캐터리
드림부동산

주택 가격 설정

크기·구조·건축 연도·리모델링 중요
전망·편의시설 근접성 등 장점 살려야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고, 부동산 시장에 주택 매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집 가격을 설정할 때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비슷한 주택의 최근 판매 가격이다. 주변에서 최근 3~6개월 이내에 판매된, 유사한 조건의 주택 가격을 참고한다. 만약에 최근 판매된 집들이 없다면 1년 전에 판매된 주택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이때 같은 크기, 침실 및 욕실 수, 건축 연도, 리모델링 여부 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현재 시장 상황을 잘 알아봐야 한다. 매물 공급이 부족한 시장(셀러 마켓)인지, 매물이 넘쳐 흐르는 시장(바이어 마켓)인지에 따라 가격 전략이 달라진다. 또한 금리 변동이나 경제 상황이 바이어의 구매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내 집의 독특한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예로는 집의 전망, 학교, 쇼핑센터, 교통, 식당, 병원, 은행 등과 같은 편의시설 근접성, 부엌, 화장실, 마루 등의 업그레이드 여부 등을 반영시킬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질로우나 레드핀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된 유사한 매물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지 점검한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제시한 가격이 셀러가 원하는 가격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에이전트가 제안한 가격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수요가 감소했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셀러가 원하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MLS, 신문광고, 소셜미디어 홍보, 더 많

은 오픈 하우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를 끌어들이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처음 2~4주 동안 셀러가 원하는 가격으로 마켓에 내놓아보고, 반응이 없으면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셀러 마켓이라면 원하는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어 마켓이고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매물이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주택이 마켓에 오랫동안 남아 있다면, 바이어들이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다.

집을 마켓에 내놓은 지 한 달이 넘고, 에이전트가 매 주말 오픈 하우스를 하는데도, 바이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고민하는 셀러들이 많다. 이런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이 있다.

첫 번째는, 마켓에 매물을 내놓고 첫 2~4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란 것이다. 첫 한 달 동안 문의가 거의 없거나 쇼잉 요청이 적다면 가격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주변 유사 매물이 팔리는 속도와 가격을 다시 확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 점검한다. 경쟁 매물이 많아지는 시점이라면 가격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격을 내리는 시점은 리스팅 후 30~45일 이내에 바이어의 관심이 없으면 조정하는데, 가격 인하를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주변의 팔린 매물 가격들을 살펴 보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팔리는 속도와 기간이 모두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가이드



렉스유
CBRE Korea Desk 대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법적인 설명·서명·공증·양도유형 포함
타이틀 조사 꼼꼼히 하고 필요시 보험 가입해야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소유권(Title)과 등기 증서(Deed)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둘은 다릅니다.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받기 위해서는 타이틀과 디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권(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부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은 실물 문서가 아니라 개념적인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소유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인지, 혹시 이전 소유자의 미납 세금이나 담보 대출 같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타이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등기 증서(디드)란

디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하는 공식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이전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디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인 양도인(Grantor)과 양수인(Grantee),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설명, 소유권을 완전

히 보장하는 워런티 디드인지 단순히 자가 가진 권리만 넘기는 퀵클레임디드인지 등의 양도유형, 유효성을 위한 양도인의 서명과 공증.

부동산 거래가 끝나면 이 디드는 지역 등기소에 기록되며, 이를 통해 공식적인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타이틀과 디드의 차이

정리하면, 타이틀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고, 디드는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부동산을 사면 디드를 받게 되지만, 타이틀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집을 팔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는 거래를 마치고 디드를 받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A씨의 과거 채무로 인해 타이틀에 문제가 있었다면 B씨는 법적 소유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타이틀이 깨끗한지, 디드가 올바르게 작성되고 공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소유권 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스크, 요식업 진출 준비”

총천소에 영화관·레스토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총천소에 영화관과 레스토랑을 더한 복합 시설 개장을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NYT는 당국에 제출된 건축 허가 신청서 내용과 테슬라 측에서 식당 위탁 운영 제안을 받은 요식업체 관계자들의 말 등을 인용해 테슬라가 LA 샌타모니카 대로에 심야까지 운영하는 식

당이자 영화관, 총천소를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시설의 개장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이 신문은 “테슬라의 리더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업에 막 진출하려는 것”이라며 “주유 시간보다 충전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전기차 시대에 주유소에서 식사하는 문화를 재창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건축 허가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이 복합시설 안에는 30분 가량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 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머스크는 2023년 8월 엑스(X-옛 트위터)에 “LA에서 우리의 테슬라 미래형 식당은 올해 안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려 테슬라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식당 개장을 추진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NYT는 현재 LA에서 마무리 공사 중인 테슬라 복합단지가 2023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2023년 9월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테슬라 측은 그동안 LA의 여러 유명 레스토랑 업주들에게 테슬라 식

당 운영을 제안했는데, 2023년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캐럴라인 스타인은 이 식당이 주류 판매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 이유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면서 이에 더해 머스크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한 반감이 커진 탓에 최근 자신의 테슬라 차를 팔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NYT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



아 연방 기관 축소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진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측의 공격이 테슬라를 겨냥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요식업 진출이 이전보다 더 도전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투책 리스팅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COMING SOON Germantown MD	 COMING SOON Bethesda MD	 COMING SOON Gwynn Oak MD
타운홈 방3, 화3.5	싱글홈 방4, 화2/1	싱글홈 방4, 화3
 COMING SOON Elkridge MD	 COMING SOON Nottingham MD	 COMING SOON Columbia MD
타운홈 방4, 화3/1, 차고1	싱글홈 방3, 화2	타운홈 방3, 화2/1, 차고1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Columbia	 RENTED Columbia	 RENTED Odenton	 RENTED Bowie	 RENTED Pasadena	 RENTED Germantown	 RENTED Glen Burnie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월 \$1,750 콘도 방2, 화1

H MART®

강원특별자치도 특판전

GANGWON STATE SALE EVENT

Experience the finest of Gangwon State with our exclusive products showcase.

APR. 4th - APR. 17th, 2025

Sale Excludes: [VA] Falls Church, Manassas
[MD] Catonsville, Wheaton



Buckwheat Noodles with Korean Herb & Perilla Oil
들기름 막국수
4.4 OZ

~~\$5.99~~

\$4.99



Jeongseon Arari Got Jeonbyung Cake
정선 아라리 갓 전병
1.32 LB

~~\$7.99~~

\$5.99



NURIMARU Sokcho Style Myungtae Cold Noodles
누리마루 속초식 명태 회냉면/비빔냉면

~~\$9.99/\$10.99~~

\$7.99



COLD (44.45 OZ)/
BIBIM (27.51 OZ)

OSAEKJANG Chunggukjang, Fermented Soybean Paste
오색전통장 청국장
11.6 OZ

~~\$6.99~~

\$4.99



NURIMARU Mandu
누리마루 낙지/명란/새우/쭈꾸미만두
ALL VARIETIES
17.28 OZ

~~\$6.99~~

\$4.99



HAEMOUN Raw Soybean Pulp from Hongcheon
해모운 강원홍천콩 생비지
5.29 OZ

~~\$3.99~~

\$1.99



SEOWONDANG Pure Perilla Oil
서원당 들기름
250 mL

~~\$24.99~~

\$17.99



SEOWONDANG Roasted Black Sesame Seeds
서원당 검정볶음참깨
3.52 OZ

~~\$11.99~~

\$8.99



Yang Yang Shiitake Mushroom Powder
양양킹버섯 표고분말
5.3 OZ

~~\$17.99~~

\$14.99



SEORAKSAN GREEN FOOD Ingredients for Samgyetang
설악산그린푸드 마수아 삼계탕 속재료
3.63 OZ

~~\$5.99~~

\$3.99



BONGPYUNG 15 Roasted Grains Powder
봉평촌 십오곡 미식가루
2.2 LB

~~\$8.99~~

\$6.99



DONGGANG MARU Perilla Powder
동강마루 들깨가루
8.8 OZ

~~\$14.99~~

\$11.99



NATURE'S CHOICE Delicious Memories Scorched Rice
자연의 선택 구수한 추억의 누룽지
ORIGINAL/BUCKWHEAT

~~\$12.99~~

\$8.99 2.2 LB



Korean Traditional Drink Sikhye
철원 오대쌀식혜/봉평메밀식혜
ORIGINAL/BUCKWHEAT
1.5 L

~~\$6.99~~

\$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올 시즌 NCAA 토너먼트는 우승 후보들이 이번 없이 4강에 올라 열기가 더 뜨겁다. 60대 베테랑과 30대 초보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관심거리. 듀크대 1학년 백인 포워드 쿠퍼 플래그(오른쪽)는 경험이 부족한 세여 감독의 '비밀 무기'다.

레이커스 3점포 16방 로키츠 제압

LA 레이커스가 3점포 16개에 힘입어 휴스턴 로키츠를 꺾고 서부 콘퍼런스 3위 덴버 너기츠의 뒤를 한 경기 차로 바짝 쫓았다.

레이커스는 지난달 31일 LA의 크립 토닷컵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휴스턴을 104-98로 물리쳤다. 레이커스는 다시 연승을 달리며 46승 29패를 기록했다.

서부 콘퍼런스 4위 레이커스는 3위 덴버를 한 경기 차로 추격하는 한편, 5위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격차를 두 경기로 벌렸다.

3연승에서 발걸음을 멈춘 서부 2위 휴스턴(49승 27패)과 3위 덴버의 거리는 1.5경기로 줄었다.

도리안 핀니시미스와 게이브 빈센트가 3점포 6방씩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레이커스는 3점포 16개를 가동했다.

48-48, 팽팽하게 맞선 채 전반이 끝난 가운데 레이커스는 3쿼터에서 외곽포 7방을 몰아쳤다.

5점 차로 앞선 채 들어선 마지막 쿼터에서 레이커스가 도망가면 휴스턴이 바짝 따라붙는 양상이 반복됐고, 종료 20초 전엔 휴스턴이 달린 브록스의 자유투로 레이커스에 2점 차 턱밑으로 다가왔다.

종료 8초 전엔 알프레드 쉰군의 레이업을 제임스가 블록했고, 이어진 휴스턴 공격에서 브록스의 3점포가 림을 외면하며 레이커스가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는 핀니시미스가 자유투 두 방으로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레이커스의 루카 돈치치, 핀니시미스, 빈센트가 모두 20점을 기록했고, 제임스와 오스틴 리브스도 각각 16점 8리바운드, 12점 8리바운드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휴스턴에서는 아멘 톰슨이 20점 6리바운드로 분전했다.

오클라호마시티 선더는 시카고 불스를 145-117로 대파하고 10연승을 달렸다. 오클라호마시티의 에이스 샤이 길저스알렉산더는 27분만 뛰고도 27점 1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동부 10위 시카고는 42패(33승)째를 쌓았다.

피주영 기자

2000만명의 눈 쏠린다... '3월의 광란' 파이널 4

이번-플로리다, 듀크-휴스턴
5일 4강 격돌...관심 뜨거워
60대 노장 vs 30대 감독 구도

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를 일컫는 '3월의 광란'. 올해 열기는 예년보다 더 뜨겁다. 우승 후보인 1-4번 시드 팀(전체 68팀)이 예상대로 '파이널 포(Final Four·4강)'에 진출했다. 이번대(1)·듀크대(2)·휴스턴대(3)·플로리다대(4)까지 네 팀이다. 이번대는 플로리다대와 듀크대는 휴스턴대와 '파이널(결승)' 진출을 다툰다. 4강전(5일)과 결승전(7일)은 샌안토니오에서 열린다.

3월의 광란은 단계마다 알파벳 첫 글자를 맞춰 부른다. 16강은 '스위트 식스틴(Sweet Sixteen·달콤한 승리를 맞춘 16팀)', 8강은 '엘리트 에이트(Elite Eight·최정예 8팀)', 4강인 '파이널 포'는 '끝까지 남은 4팀'이다.

올해 준결승전은 '60대 백전노장'과 '30대 초보 감독'의 지략대결로 관

심을 끈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올해 파이널 포는 세대 간 대결, 다른 두 시대를 상징하는 감독들이 나선다"고 소개했다. 모두 생애 첫 우승 도전이다. 이번대 브루스 필(64) 감독은 지도자 경력 43년인 할아버지 감독이다. 2014년부터 이번대를 이끈 그는 대학은커녕 고교선수로도 뛰지 않았다. 파이널 포는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6년 전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CBS는 이번대의 선전을 "스타 감독의 힘"으로 평가했다.

플로리다대 타드 골든(39) 감독은 '젊은 피'다. 대학 시절 3월의 광란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프로리그에서 선수로 뛰었다. 선수 은퇴 후 광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그는 선수들 동기부여의 일인자다. 뉴욕타임스는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어필해 '바이어(선수)'를 설득하는 데 능하다"고 평가했다. SI는 "필이 지도자를 시작했을 때 골든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며 두 감독을 비교했다.

듀크대 '윈 클럽맨'(선수-지도자)인 존 세여(37) 감독은 4강 감독 중 막내

다. 선수 경력은 가장 화려하다. 2010년 주장으로서 듀크대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2022년 마이크 시츨스키(78) 감독으로부터 모교 지휘봉을 물려받았다.

경험이 부족한 4년차 감독 세여에게는 '초강력 병기'가 있는데, 1학년 포워드 쿠퍼 플래그(18)다. 프로농구(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가 유력한 플래그는 경기마다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CBS는 "침착·활기·멋이 세여 감독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다. 선수들과 어울리며 잠재력을 끌어낸다"고 평했다.

패기의 듀크대에 맞서는 휴스턴대 켈빈 썬슨(69) 감독은 네 감독 중 최연장자다. 1979년 지도자를 시작해 46년째 활약 중이다. NBA 코치 경력도 있고, 미국 청소년대표팀 감독도 지냈다. 대학 무대에서 각종 감독상을 18회 수상한 레전드 지도자다. 다만 썬슨 감독은 앞서 파이널 포를 두 차례(2002·21년) 경험했지만, 결승행은 모두 실패했다. NBA를 경험한 썬슨은 승부처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다.

많은 팬을 보유한 강팀들이 선전하면서 올해 대회는 역대 최고 흥행을 누리고 있다. 64강전 경기당 평균 시청자(880만명)는 지난해보다 2%, 32강전(1020만명)은 3% 각각 늘었다. 특히 32강전은 1993년 이후 최다 시청자를 기록했다. 4강전 시청자는 20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TV 중계권자인 CBS·TNT 등은 10억 달러 이상씩 광고 수입을 올릴 전망이다. 이들이 투자한 중계권료는 9억 달러 안팎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예측이 맞을지도 큰 관심사다. '농구광'인 오바마는 재임 내내 승리 팀과 우승 팀 맞추기에 열을 올렸다. '버락'과 '브라켓올로지'(대진표 짜기)를 합성한 시사용어까지 나왔다. 적중률은 높지 않았다. 올해 그는 듀크대 우승을 점쳤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우승팀(코네티컷대)을 맞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않았다.

피주영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부터 지금까지)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head (somewhere); (어디로) 가다

Gary and George are leaving work for the day. (게리와 조지가 퇴근하고 있다.)

Gary: So what are you doing tonight?
게리: 그래 오늘 밤에 뭐 할거야?
George: I'm just going to head home. And you?
조지: 집으로 갈 참이야. 너는?
Gary: I have to stop by the market and buy a few things.
게리: 마켓에 잠깐 들러서 뭐 좀 사야 돼.
George: Are you going out?
조지: 외출하는 거야?

Gary: No. Lisa and I will stay home and pop in a movie.
게리: 아니. 리사하고 집에서 영화나 한 편 볼거야.
George: What are you going to see?
조지: 뭐 볼 건데?
Gary: I don't know. I told Lisa to rent whatever movie she liked.
게리: 나도 몰라. 리사한테 보고 싶은 거 빌리라고 했어.

George: Oh I'd like to get Lisa's recipe for her Chinese chicken salad. I like it.
조지: 아 그래. 리사가 만든 중국식 닭고기 샐러드 요리법 좀 받고 싶은데. 맛있더라고.
Gary: Give her a ring. She's home right now.
게리: 리사한테 전화해. 지금 집에 있어.
George: Now? Where did I put my cell phone?
조지: 지금? 내가 휴대폰을 어디에 놔뒀더라?

기억할만한 표현
▶ stop by (a place): (어디에) 잠깐 들르다.
"I have to stop by the library and get my daughter." (도서관에 잠깐 들러서 딸을 데려와야 합니다.)
▶ pop in a movie: (비디오나 DVD를 넣어) 영화를 보다.
"Let's pop in a movie after dinner." (저녁 먹고 영화 한 편 봅시다.)
▶ give (one) a ring: (누구에게) 전화하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아홉째 달. ~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꽃잎이 피는 소리/꽃잎이 지는 소리/가루수에 나뭇잎은 무성해도/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은 지고(패티김) (2)최저 기온이 섭씨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더운 밤 (4)돈, 신분증 등이 들어있고 (5)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 (6)아내가 있는 남자 (7)신체의 내부를 관찰하는 기계 (9)기관이나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 봄 (10)철사로 그물처럼 엮어 만든 것 (14)한번 잡은 호랑이의 꼬리는 놓기가 어려움. 위험한 일에 손을 대어 그만두기도 어렵고 계속하기도 어려움 (16)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 (18)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 빈, 부마 등의 지위에 봉하여 세우는 일 (20)대의 땅속줄기에서 돌아나는 어린썩 (21)신심이 없이 입을로만 외는 헛된 열불. 실전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 (23)명태의 창자를 소금에 절여 담근 젓갈 (24)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25)약속 이행의 담보로 잡아 두는 사람 (26)총의 아랫부분 (27)운동선수의 등 뒤에 붙이는 번호.

세로열쇠

(1)방귀에서 나는 냄새 (2)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 (3)들이나 교외로 나가서 노는 모임 (4)쇠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물체 (5)신선이 산다는 곳 (8)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 ~를 때다 (11)정조를 굳게 지키던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그대로 죽어 화석이 되었다는 전설적인 돌. 또는 아내가 그 위에서 서서 남편을 기다렸다는 돌 (12)실내의 온도를 낮춰 차게 하는 일 (13)기차나 배에서, 증기의 힘으로 소리를 내는 신호 장치 (14)입에 겨우 풀칠(호)을 하는 방책.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 (15)층계, 다리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구조물 (16)물속에서 헤엄침 (17)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19)물건을 몰래 모아서 감추어 두는 짓 (20)죽을 쓸 때에 죽이 고르게 꿇도록 휘젓는 나무 막대 (21)밥을 털어먹는데 쓰이는 그릇 (22)밤에 번갈아서 잠을 자지 않고 살피고 지키는 사람 (24)전기와 열의 전도성이 뛰어난 붉은색을 띤 금속 원소. 원자 기호는 Cu.

스도쿠

					2		8	
	6	5		3				
2		7						6
	4		9		8	7		
6	1				7	8		
	3					6		
1		6	5	4	9	3		
9	5							2
8								4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6	5	9	1	2	3	7	8
2	9	1	3	8	7	4	5	6
7	8	3	6	4	5	9	2	1
6	2	9	1	5	4	8	3	7
5	4	8	7	2	3	6	1	9
3	1	7	8	9	6	2	4	5
9	3	4	5	6	1	7	8	2
1	7	1	6	2	3	8	5	4
8	5	2	4	7	1	6	1	3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4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3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유무경력자
443-386-0515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 메릴랜드 JESSUP- 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자 구함
풀타임, 컴퓨터 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 8:00 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장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험자우대
410-750-3333

▶▶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Soo)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5분거리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욕실달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임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월료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무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양로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301-257-7126

▶▶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301-385-3535 (문자요망)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퍼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 Research Analy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Create digital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 hours / week.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Nowy Brands, LLC at 7921 Jones Branch DR., Ste LL2, McLean, VA 22102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 스마트보험 Contracting/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무경력자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무경력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티트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력자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우대
이력서: hr@yic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자/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andhomehealth.com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489-5105

식당/식품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하바지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489-5105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임, 캐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셰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 휠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술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급,도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이미용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용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
240-644-4190

▶▶로튼세탁소파트/풀타임 카운터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 /파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알렉산드리아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703-887-5355 (문자요망)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F (9-5pm)
856-304-1907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
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출아서해주시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엇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맥클린 하이 싱글 렌트 \$5,900, 방3, 카
포치2, 펜스, 전부 모던형 리모델링, 6/1입
주, 메트로 인근
571-239-6054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센터빌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 풀베스
월 1,600불
703-489-6926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센터빌 롯데대 근처 콘도 방2, 욕실 1.5, 깨끗하
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 가능
301-466-1646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 (물값과 개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운.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 없
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에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넉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카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엇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노바,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10분거리, 버크
싱글홈 지하 방 하나 렌트, 가구완비, 금연,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롯데대 근처 타운 하우스
욕실 딸린 방 하나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센터빌 롯데에서 가까운 타운홈 잠만 주무실
여자분, 유포 \$750
703-581-2631

에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
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에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튜 포함
703-474-9713

첼트리 롯데대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3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테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녁까지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반 지하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첼트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571-239-6054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애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703-813-8949

1.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 유닛, 데크, 팬스, 파월 초, 센터빌하이
3. 패어팩스 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Oaks mall, Fair 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 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1.8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집, 옥튼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박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 3.5, 렌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렌트수익 \$3,000
3.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사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미장원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qft,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찬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앤지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상태 \$3,000
571-814-8773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맛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
원, 카운티, DMV, 차없으신분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
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온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데크 메
인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
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
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
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등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포장. 자체창고보

관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
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
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힘처리가능/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가을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페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 계단
- 워크웨이
-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핫딜** **4월의 핫딜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통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H O T D E A L S S U P E R S A L E



받침대 포함 국내 생산 고품질 스테인리스+고순도 알루미늄
 초고압으로 갓 지은 밥과 고소한 누룽지를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플라라 통3중 미니 압력밥솥
 1L (1~2인용) \$154.99 2.2L (2~3인용) \$179.99

요리에 편리함을 더한 특허받은 기울기 41.5도 자동회전냄비
 열 가두는 자동회전냄비 인스타그램 유튜브 화제의 리뷰템!
바이탈 롤팬원통자동회전냄비
 통가열 입체구조: 그레이, 머스터드, 민트 ~~\$290~~ \$199



핫딜 입점기념 이벤트 베개커버 무료증정 (색상 랜덤 발송)
 뒤척임에 최적화된 4분할 구조로 어떤 체형에도 숙면 가능
깊은잠 베개 슬립 앤 슬립 아이유 베개
 SMALL \$119 MEDIUM \$129 커버ONLY \$30

심플하지만 가볍고 맵시하며 고급스러운 스타일
 스타일, 핏, 착화감 3박자 모두 잡은 고급스런 슈즈
심플 슬립온 슈즈 #18135
 화이트, 블랙컬러의 발이 먼저 찾는 슈즈 ~~\$95~~ \$75



타고난 결을 빛내는 스킨누더쿠션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모이스처 핏 텍스처, 클리어 커버링, 내추럴 글로우 & 래스팅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리필 포함 (7가지 쉐이드) 미백, 주름개선 효과 \$39.99

선크림 유목민 정착템! 빛나는 피부표현의 시작!
 생기톤업, No백탁, No다크닝, 저자극 3중기능성 선크림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50ml
 1개 \$35 2개 \$59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한국화장품샵 구인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실 경험 많으신 분 영여가능자, 아파트 제공 (907)250-8864 이민생활의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림·변바·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영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금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지긋한 통증과 중풍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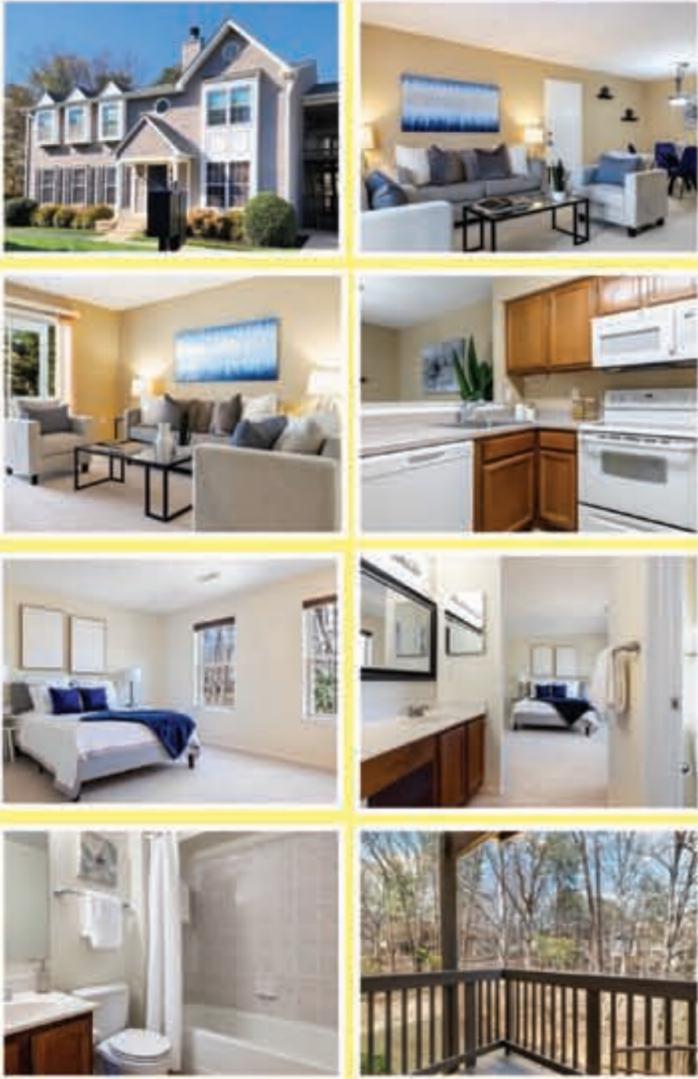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www.purepower4u.com
남자의 힘, 무한한 능력
 Pasadena Language Center
VIA-MAX GOLD
 단 한알로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 정신적 육체적인 성기능 강장제로 한알 복용으로 3일간의 확실한 효과, 나이와 상관없이 성욕과 성기능 강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100% NATURAL로서 최상의 생약을 첨단 기술로 추출한 성분으로 부작용 전혀없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체내의 빠른 흡수로 신속한 효과!
 ■ NITRIC OXIDE(산화질소) 혈관 확장으로 발기부전에 탁월한 효과와 혈액순환 강화로 성기능 증강
 ■ DHEA SHBG 등 전체 남성 호르몬 증가로 성욕증가
 ■ 신장기능강화로 피로회복
 ■ 전립선기능 강화와 배뇨기능향상
판매처 | 중앙일보 핫딜(Hot Deal) 각약국에서 절찬리 판매중
관절통에 좋은 호인 한방크림 (\$50 상당) 1개 Free
HEALTHREE 1 CO | 562-926-3001
 14730 Beach Blvd. #103, La Mirada, CA 90638

특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2, 새 카펫, 새 페인트,
탁 트인 구조, 넓은 리빙 룸,
발코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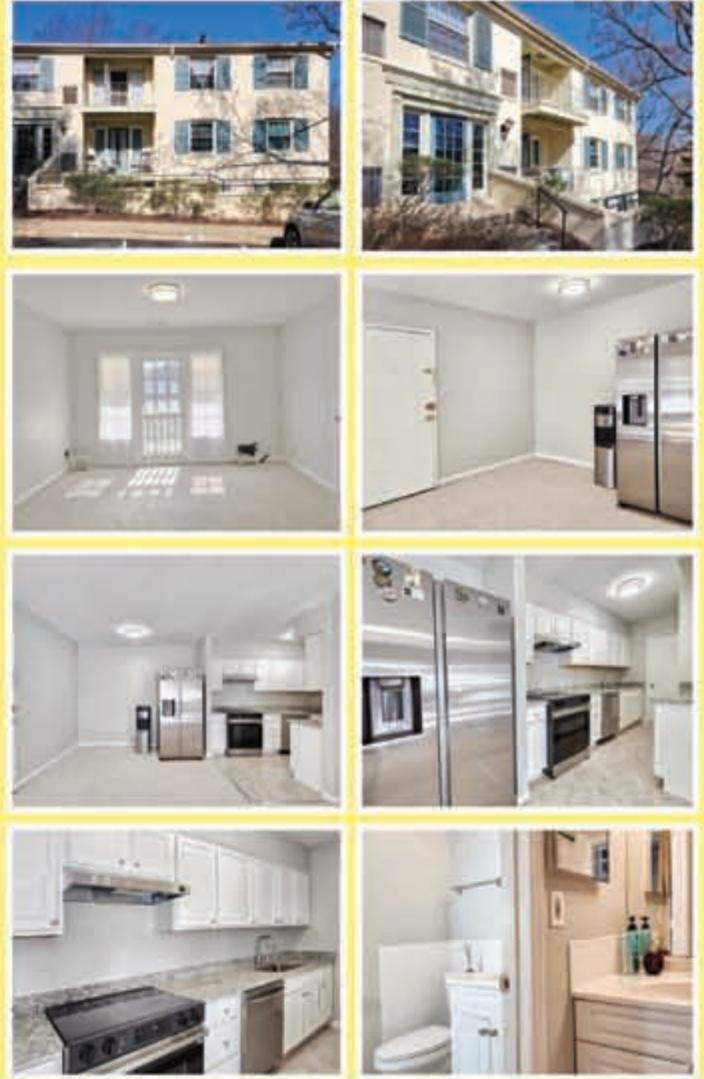
\$375,000



특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69,900



특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깝음

\$210,000



특점 Stafford 단독주택

2011년에 지은 집, 2022년에 업그레이드, 방 5, 화 5,
차고 2, 윗층에 Full Bath 3개, 최고급 자재로
업그레이드 한 집, 새 단지 새 동네, Walkout Basement

\$71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